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향 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치매 노인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재 원

치매 노인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 향 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재 원

인 준 서

김재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 질환자의 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중 특히 치매 환자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치매에 대한 완벽한 치료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약물을 이용한 의학적인 치료가 주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체치료의 하나로 미술치료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 미술치료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을 두어, 각종문헌과 본인이 7년 동안 병원에서 치매환자 미술치료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고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본론에서는 치매 노인의 미술치료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문헌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치매 노인으로 인하여 과생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신문, 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에 미치는 영향과 접근방법에 대해 국내외 문헌들을 본인의 경험에 접목시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치매노인에게 실시되는 미술치료의 실제적인 적용 방안에 있어서 일상적인 상황 특히 재가(在家) 치매노인 환자에 대한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제시해보고, 적용가능 한 구체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치매는 노화와 관련된 질환으로 초기 발견도 쉽지 않지만 일단 퇴행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단계가 되면 치매 환자 본인은 물론 그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가운데 미술치료는 재가치매노인의 정서를 환기 시켜 일상생활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와병으로 격리된 중증 치매노인에게도 미술치료의 적용은 소외감을 줄이고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미술치료는 보다 넓게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련 연구와 더불어 많은 행정가들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되며 또 누구나 치매노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미술치료의 활성화를 통한 치매노인 문제의 접근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2. 연구 방법 및 내용	4
II. 이론적 배경	5
1. 치매와 치매노인	5
1) 치매의 정의	5
2) 치매노인의 현황	9
3) 치매노인의 사회적 문제점	11
2. 미술치료	18
1) 미술치료의 정의	18
2) 미술치료의 장점	20
3) 미술치료의 필요성 및 효과	23
3. 치매노인 미술치료에 대한 선행연구	27
4. 치매노인 미술치료의 필요성	30
III. 치매노인 미술치료의 영향 및 효과	32
1. 미술의 생리적 측면의 영향 및 효과	33

2. 미술의 심리적 측면의 영향 및 효과	36
3. 미술의 사회적 측면의 영향 및 효과	38
IV. 치매노인 미술치료의 접근과정 및 적용	41
1. 치매노인 미술치료 기법	41
1) 인지적 영역의 기법	42
2) 행동적 영역의 기법	44
3) 사회-정서적 영역의 기법	45
2. 치매노인 미술치료 접근과정	47
1) 감각 유지를 위한 접근 과정	48
2) 현실 인식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접근 과정	49
3) 동기 유발을 위한 접근 과정	50
3. 치매노인 미술치료의 적용	51
1)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적용	51
2) 과거회상에 적용	52
3) 오락과 여가선용을 위한 적용	54
V. 치매노인 미술치료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58
VI. 치매노인 미술치료 프로그램 제안	62
1.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62
2. 회상유도를 적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89

3. 정서완화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96
VII. 결론 및 제언	105

참고문헌

부록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 1>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진행구성	63
<표 2> 인지기능 향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1	64
<표 3> 인지기능 향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2- 농촌형	72
<표 4> 인지기능 향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2- 도시형(고학력자)	80
<표 5> 회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90
<표 6> 정서완화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97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 영양공급이 양호해지고 의료혜택이 확대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노인성 질환과 같은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그 중에서도 치매는 개인, 가족, 그리고 국가가 공동 대처해야 하는 대표적인 노인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치매는 노인들의 사망 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환자의 수가 2050년경에는 1천4백만 명 선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¹⁾ 구미 선진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치매유형인 알츠하이머병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4% 에서 발견되고 매년 1% 씩 증가하여 80세에 이르면 발생 위험률이 20% 정도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80세 이상 노인계층의 다섯 명 중 한 명 정도가 치매환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도 외국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치매노인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역학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치매유병률이 8.58%라고 보고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매유병률은 2010년 8.76%, 2012년 9.08%, 2020년

1) 윤영옥(2001),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재인용

9.74%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는 지난해 45 만 명에서 올해 47 만명, 2012년 52 만명, 2020년 75 만명, 2030년 114 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인구 10 만명당 치매환자수는 35 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프랑스(79 명), 독일(38 명), 영국(37 명)보다는 적지만 미국(6 명), 일본(7 명), 이탈리아 (20 명)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다.²⁾

지금까지는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치매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회복에만 주력하였고, 가족들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 치매노인이 생기게 되면 가정의 불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시부모가 오랫동안 치매를 앓는 경우에 그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치매노인의 문제는 사회문제로까지 연결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사회적 보호대책이 미비함과 아울러 치매에 관한 연구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치매와 그 가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치매노인의 부양실태,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과 이를 위한 서비스개발, 치매전문요양시설에서의 치료적 건축환경계획 등에 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행동문제, 정서장애, 인지기능의 개선에 목적을 둔 치매치료에 관한 연구도 몇편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크게 의학적치료와 사회환경적 치료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치매는 특성상 비가역적이고 명확한 병인이 밝혀져 있

2) 박영순, 포커스신문사, 2010.1.16

지 않아 원인적 치료가 어려우므로 종합적 치료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치매의 의학적 치료로는 약물치료가 주를 이루었는데, 특히 인지기능 개선과 우울, 불안, 수면장애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의 조절을 위한 약물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법이지 원인을 차단하는 치료법은 아니다.

또 다른 치매에 대한 치료적 접근방법으로는 작업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회상치료 등이 있으나, 이러한 치료적 접근방법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들어 많은 학자들은 약물치료 외의 방법으로 치매환자들을 치료해보려는 시도와 아울러 미술치료를 통한 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해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정서장애나 정신장애에 미술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의학적 치료법을 선호하고 있어 미술치료가 생리적, 심리적 측면의 이론적 근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적 적용과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치료 특히 인지기능 유지나 개선 또는 우울성향과 같은 대표적인 증상의 개선에 도움을 줄 다양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가 치매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치매치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각 목표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방법은 치매노인 및 미술치료와 관련된 단행본, 연구 논문 및 각종 보고서, 학술지, 신문, 일간지 등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한 문헌연구이다.

즉 이러한 문헌들을 검토하여 사회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영향과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서 미술치료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실제 적용해볼 수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연구 대상이 치매 노인 문제인 만큼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들을 접목시켰다.

II. 이론적 배경

1. 치매와 치매노인

1) 치매의 정의

치매(dementia)는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의 외인에 의해서 기질적으로 손상 내지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 기능과 고등 정신 기능이 감퇴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을 일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다.³⁾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 즉 망년기가 생긴다고 알고 있었으나 요즘은 지극히 정상적인 노화과정, 즉 노망이라 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질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치매란 대뇌의 병변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의 임상증후군으로서 대개 만성적이고 서서히 악화되는 진행성으로 나타나며 기억력, 사고력, 시공간인지능력,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이해력, 계산능력, 낯선 환경으로부터의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의 손상을 포함하는 인지기능 장애이다. 또한 치매는 최근 일반인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알츠하이머병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발성 뇌경색(뇌졸중, 즉 중풍) 등에 의한 혈관성 치매, 우울증에 의해 생기는 가성치매, 외상에 의해 생기는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치매 등을 포함하는 임상증후군이다.

3) 오병훈(2009), 『치매-치매 이해와 치료의 바른 길잡이-』, 무지개사, p. 7.

따라서 원인에 관계없이 기억장애, 언어장애, 시공간인지능력 장애, 실행증, 실인증, 계산능력의 저하, 전두엽과 집행기능 저하 등 여러 가지 인지장애 중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이 상실되어 일상적인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이 중에서 기억력이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장애를 보이기 때문에 흔히 기억장애를 치매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억장애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치매라고 하지 않고 기억장애라고 한다.

치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는 원인을 알고 치료가 가능한 가역성 치매와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가 어려운 비가역성 치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역적인 원인으로는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영양대사장애, 내분비계 불균형, 기관 문제, 악성 종양, 외상, 환경적 문제, 감염 등을 들 수 있으며 비가역적인 원인으로는 1차 퇴행성 치매로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다.

치매는 초기에는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장애를 보이기 시작하고 기능장애까지는 일으키지 않으나, 점차 치매가 진행되면서 도구적 일상생활기능이 떨어지고 이해력, 언어표현력 저하, 심한 기억력 장애, 우울이나 기타 정신병적 증상과 목적 없는 배회와 초조행동, 과묵적 행동 등의 행동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치매 말기에는 기본적인 일상생활기능 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며, 무감동과 무관심, 간단한 지시도 잊어버리고 사람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치매의 원인 질환에는 여러 질병이 있으나 이를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가 약 50~6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20~30%를 차지하며 나머지 10~30%는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매는 원인 질환의 성격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치매가 발병한 경우에는 그 원인 질환을 예방, 치료함으로써 치매의 발병, 진행을 막거나 호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치매 원인 질환의 성격에 따라서는 다른 특별한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원발성 치매와 다른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치매가 발병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원발성 치매의 원인으로는 퇴행성 뇌질환이 대표적인데 이는 아직까지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들로서 이의 경우는 뇌 신경세포의 손상과 소실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여기에는 알츠하이머병, 전측두엽치매,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 루이체치매가 이에 속한다. 다른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로는 우울증이나 약물, 알코올 및 화학물질 중독, 전해질 장애, 갑상선질환, 비타민결핍증 등, 감염성 뇌질환, 두부외상, 수두증과 다발성 경색증 등이 있다.

이러한 치매의 원인 질환에 따라 치매의 유형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

(1) 퇴행성 질환

퇴행성 질환이란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세포가 점차 소실되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며, 퇴행성 질환에 의한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이외에도 픽병, 파킨

4) 김영미(2001), 「치매노인에 대한 미술치료의 효과성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8.

슨병, 진행성 핵상마비, 루이체치매가 있다.

(2) 뇌혈관 질환

뇌세포는 혈액으로부터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으로 기능을 유지하는데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받게 된다. 또한 뇌혈관이 터지면 핏덩이가 뇌세포를 압박하여 뇌세포가 손상받게 된다. 이와 같은 뇌혈관 질환(뇌졸중)이 누적(빈발)되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혈관성 치매라고 한다.

(3) 대사성 질환

대사성 질환에 의한 치매의 원인들로는 저산소증(심장마비, 연탄가스 중독), 저혈당, 요독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성 뇌병증(간염, 간경화증에 동반되는 치매)등이 있다.

(4) 결핍성 질환

뇌세포가 활동하는데 있어 비타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필요한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치매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비타민 B12 결핍증, 티아민(B1)결핍증으로 인한 치매가 이 경우에 속한다.

(5) 중독성 질환

중독성 질환에 의한 대표적인 치매는 알코올성 치매이다. 술 자체가 뇌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비타민 결핍증이 오기 쉬운데 이 결핍증으로 인하여 치매가 오기도 한다. 그밖에 중금속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 약물 중독 등에 의해서도 치매가 올 수 있다.

(6) 뇌종양

악성 뇌종양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또는 양성 종양이라도 서서히 진행하면

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

(7) 뇌 외상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후 기억력 등 사고력이 감소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8) 감염성 질환

신경매독, 만성 수막염,(결핵성 수막염, 진균성 수막염), 뇌염의 후유증, 크로이츠펠트-야곱병⁵⁾, 에이즈 감염 등에 의한 치매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9) 수두증

뇌는 딱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뇌를 절단해보면 뇌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를 뇌실이라고 한다. 뇌실 속에는 맑은 뇌 척수액이 들어 있는데, 뇌 척수액이 생산은 되지만 흡수가 덜 되면 뇌 척수액의 양이 많아져서 뇌에 고이게 된다. 이 때 보통 3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치매, 두 번째는 요실금, 세 번째는 보행장애가 나타난다.

2) 치매노인의 현황

2010년에는 치매노인이 전체 노인의 8.76%에 달하는 47 만 명에 이를 것 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치매노인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52 만 명(9.1%), 2020년 75 만 명(9.7%), 2030년엔 114 만 명으로 급증할 것 이란 예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희 박사의 조사에서는 2008년 우리나라 65세 이

5) 야곱병: 소에 발생하는 광우병이 인간에게 생겼을 때 나타나는 치매

상 치매환자는 45 만 명에 달하고, 치매 유병률은 8.58%였다. 치매 유병률은 여성이 8.34%로 남성 7.60%로 남녀 간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치매율의 남녀 차이는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성노인보다 약 8년이나 더 높아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수보다 1.7배나 되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노인의 비율과 치매 유병률이 더욱 많아진 결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이가 많고, 여성, 저학력자, 배우자가 없거나 머리에 외상을 입은 경력이 있는 경우,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경우 치매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⁶⁾

치매는 그 증상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경증(mild)은 사회생활이나 직업상의 능력이 비록 상실되더라도 아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적절한 개인위생을 유지하며,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중등증(moderate)은 독립적인 생활이 매우 위험하고 타인에 의한 부분적인 감독과 간호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며 중증(serious)은 일상생활의 능력이 심하게 감퇴되어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상태로 최소한의 개인위생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대개는 지리멸렬한 언어구사나 함구적인 상태를 일컫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변용찬⁷⁾ 등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 노인의 약 60%가 경증 치매노인이며 약 27%는 중등증, 나머지 13%는 중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서구의 경우와 비슷한데, 서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경미한 치매를 포함하여 11~12%가 치매를 가지고 있고 6% 정도가 중증도의 치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 장한형, 노년시대신문, 2010.1.16

7) 변용찬(1997), 「치매노인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0월호, pp. 35-42.

하지만 치매에 관련된 정보가 오래 전 실시된 조사의 결과로 그 동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소득별 분포, 환자와 간병인 간의 관계 등 치매관리에 요구되는 필수 정보가 결여되고 더욱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65세 미만 성인치매(조발성 치매)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나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일본에서는 3년마다 치매 실태 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최소한 4~5년마다 정부 주도의 전 국민 치매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치매를 숨기고, 은둔 시키는 경향이 있어 사실상 치매노인의 현황이 제대로 통계되지 못하고 있다.

3) 치매노인의 사회적 문제점

치매노인 문제는 본인은 천국이지만 가족에게는 지옥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족 병에서 사회 병으로 이어진다. 심지어는 치매가 발병한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이 그로 인한 불화로 해체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인륜을 무시하지 못하고 끝까지 지켜내려던 자식들도 감당하기 버거운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해체 이후에 오는 상실감에 범죄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치매노인들 자신도 순간 현실이 파악되어지는 시간이면 가족에게 주는 고통을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여 자살을 결행하기도 한다. 치매노인의 문제는 우리 중 누구나 겪어야 할 미래이기에 현실에서 가능한 빨리 준비하여 선행되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늘어가는 노인 인구에 비해 지금까지 시행되는 단기 시설(3개월)의 수요

가 부족하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웬만한 가족이 장기간 버텨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중증 치매로 발전되면 욕창과 달리 파생되는 합병증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 하게 되므로 오랜 기간을 견디지 못하는 가족들은 패륜을 자행하고 거기서 오는 혼란이 사회문제로 파생되기도 한다. 치료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성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급격히 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노인 4300 여명이 매년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성별월별 자살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04년 1만1492 명이던 자살사망자는 '06년에 1만653 명으로 줄었다가 '07년 1만2174명, '08년 1만2858 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 자살자는 '04년 4099 명, '05년 4346 명, '06년 4006 명, '07년 4351 명, '08년 4365 명으로 나타나 매년 4300 명 가량의 노인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 이를 인구 10 만 명당 자살사망률로 비교하면 지난해 80대 이상 자살률은 112.9로 20대의 22.6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8)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핵가족화, 가족해체 등 노인 고립이 심화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노인 자살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노인 자살의 약 70%정도는 그 원인이 심한 우울증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가 절실한데, 문제는 치매환자의 30%가 우울증상으로 발견된다는 것이다.

8) 최연희, 헬스코리아 뉴스, 2009.9.24

노인성 우울증은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5%로 매우 흔하며 외국의 경우 45살 이상이 되면서 주요 우울증의 빈도가 줄어드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50살 이상이 되면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 는 세대차이가 심해진 점,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제도가 빠르게 정착된 점 등 여러 견해가 있다. 노인성 우울증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 2배 가량 많이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약 3배로 여자가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고, 사별했거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우울증의 위험이 높다.

또 노인성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의 장애가 아닌 정신 질환으로, 불면증 및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호소 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일 때가 많다. 아무 이유 없이 자주 울거나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어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도 노인성 우울증의 증상이다.

노인이 이런 우울증상을 보인다는 것은 뇌졸중, 갑상선 질환뿐만 아니라 바로 치매의 초기 신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⁹⁾

둘째, 치매로 비롯되는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하거나 버려진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며느리와의 불화가 문제로 대두되고 실제로 치매노인이 가출을 하여도 가족들이 찾으려하지 않는 실정이라서 치매노인의 가출은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방법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버림받은 노후를 천막서 연명하는 할머니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며느리와의 불화 때문에 스스로 집을 나온 김순이 할머니(가명,69), 치매 때문에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서명숙 할머니(가명,82). 할머니들의 때가 찌든 내복부터 빨아

9) 한겨레신문, 2003.10.14

드리기로 하고 수도꼭지를 돌렸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이 조금 나오다가 싶더니 이내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쏟아졌다. 연료절약형 보일러 때문이라 했다. 손은 금방 빨갛게 썩썩 얼어붙었다. 빨래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우리에게 서명숙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잡으며 아랫목 자리를 내주셨지만 문틈을 비집고 들이닥치는 황소바람에 얼어붙은 몸은 쉬 녹지 않았다. 낡은 창문, 내려앉은 방 천장, 고장 난 화장실, 샤워기 하나 달랑 있는 목욕실 등 ‘기쁨의 집’ 내부는 보수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하지만 개인들의 후원금으로 예산을 짜야 하는 비인가 시설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재개발 때문에 헐릴 위기에 처해 있다.¹⁰⁾

셋째, 치매노인에게 생기는 문제로는 주기이후의 중증으로 들어섰을 때 더욱 심각해진다. 와병으로 발전하게 되면 치매노인의 면역력의 약화로 각종 피부 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되고 급기야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최근에 치매이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늘어가는 요양비를 감당하지 못해 부모를 유기하게 되어 씻을 수 없는 범죄자로 만들어 진 자식이 생겨났다.

병든 노모를 유기한 현대판 고려장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던 노모를 부양하기 힘들어 한 병원 앞에 내다 버린 이 사건은 노인성 치매에 의해 가정과 가족윤리가 송두리째 파괴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치매에 효자 없다?’ 기술직으로 그럭저럭 평범한 삶을 꾸려오던 김모(55)씨.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을 듣던 김씨의 가정에 암운이 드리우기

10) 경향신문, 2004.1.15

시작한 것은 4년 전이다.

여든 살을 넘긴 노모가 충기가 갑자기 흐려지면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등 치매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 불과 1년 사이 증세는 더욱 심각해져 대소변을 못 가리는가 하면 잦은 가출로 집안을 발각 뒤집어 놓기 일쑤였다. 김씨의 아내(50)는 치매가 있는 노모 모시는 일을 힘들어했다. 그로 인해 김씨와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었고 급기야 아내는 가출을 해 버렸다. 가정 불화를 참다 못한 아들(22)마저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상태다. 이때부터 치매 노모를 수발하는 일은 오로지 김씨의 몫이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챙기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기본이고, 언제 어디로 노모가 가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 놓고 일을 나갈 수도 없었다. 김씨의 불규칙한 출퇴근으로 일자리는 금세 끊겼고, 수입이 없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른 것은 당연지사. 김씨의 인내심도 마침내 바닥을 보였다. 단란했던 가정이 어머니의 치매 때문에 벼랑 끝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생각에, 급기야 김씨는 어머니를 내다 버리기로 결심한다. 어머니를 편안하게 봉양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도 못 되었기에 차라리 '현대판 고려장'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병원에 간다"고 숙여 택시를 함께 타고 부산 침례병원 앞에 도착한 뒤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김씨의 노모는 이 병원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으나 병이 깊어 자신의 신분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일단 행려환자로 분류돼 부산의료원을 거쳐 현재 노인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2일 치매 증세를 보이는 노모를 내버린 혐의(존속유기)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 노모의 신원을 밝혀낸 뒤 11일 만에 아들

김씨를 찾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병원 앞에 모셔다 놓으면 병원이 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잘 돌봐 줄 것으로 생각했다"며 뒤늦게 고개를 떨어뜨렸다.¹¹⁾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치매는 본인은 천국이고 가족은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주변인이나 가족이 견디어 내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체의 회복에만 주력하는데 이제는 치매노인의 우울증도 제대로 치료해야 할 단계이다.

위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들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억력 감퇴를 주 증상으로 하는 치매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의학계가 풀어야 할 대표적인 질병이다.

노망으로 더 잘 알려진 노인성 치매는 보통 60세 이후 정신기능이 떨어지면서 성격이 변하거나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등이 정상인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 신경 및 뇌의 노화와 특정질환 등 수 백가지 원인으로 발병하는 만큼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로서는 알츠하이머병, 뇌경색질환, 그리고 알코올중독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알츠하이머병은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뇌신경 세포 속에 축적돼 독소로 작용함으로써 뇌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 역시 나이가 더해감에 따라 혈관이 망가지고 뇌혈관 순환이 제대로 안되면서 뇌 부위에 경색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체치매의 30%정도를 차지한다. 이밖에 알코올을 지나치게 섭취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가 손상을

11) 박진국, 이현우, 부산일보, 2005.8.22

입을 경우도 10%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울증에서도 치매 증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이 최근 6년간 치매 증상을 호소한 65세 이상의 노인 404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인 160 명이 우울증상을 보인 것을 나타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김기웅 교수는 “노인성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우울증에 비해 기억장애나 집중력 장애 등이 심해 치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성치매’로 불리기도 한다”로 말한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감퇴는 치매와는 달라서 치료제를 복용해도 잘 호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 노인성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만성적인 통증이나 신체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자살위험도 높다.¹²⁾

다섯째, 노인인구의 급증은 국가의 의료비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가운데서도 치매노인과 관련된 장단기 입원 환자의 증가로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에서 골치를 앓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층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특히 노인층 환자의 상승세가 두드러져 65세 이상은 진료비가 21.6%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도 급증하고 있다. 노인진료비가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는 노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알츠하이머는 전년에 비해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노인 인구 비율은 2.5% 증가했지만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 진료비는 21%에서 30%로 9%나 늘어나는 등 노인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³⁾

12) 경향신문, 2004.3.29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과 보호를 국가와 사회가 떠맡는 제도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가 2007년부터 운영될 경우 노인 의료비 비중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 추계에 의하면 이 제도가 정착되는 2013년까지 모두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2. 미술치료

1) 미술치료의 정의

미술치료란 조형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표현과 승화 과정을 통해 자아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자발적인 조형 활동은 개인의 내적세계와 외적세계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며,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서 미술치료는 언어성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지금까지의 자기 상실, 왜곡, 방어, 억제 등의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자기 발견과 자기실현을 꾀하게 한다.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Bullectin of Art Therapy) 창간호에서 편집자 울만(E. Ulman)¹⁴⁾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녀는 미술치료는 교육, 재활,

13) 정규해, mbn뉴스, 2009.2.24

14) E. Ulman: 미국의 미술작가, 울만은 1961년에 이미 "미술심리치료"와 "치료로서의 미술"이란 용어를 다 포함하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생각은 저서에서 잘 나타나 있다. 미술치료 실행에 있어서는 두 측면의 적용 타당성을 인정한다. "치료에서의 미술"과 "치료로서의 미술"은 같은 시점에 같은 방에 있는 두 측면이거나 다른 시기에 같은 치료자가 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임상가로서의 자신의 생활에서 울만은 치료로서의 미술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미술심리치료를 사용했고, 미술심리치료가 통하는 곳에서는 치료로서의 미술을 사용해서 이 둘 사이에 서로 융통성 있는 선택을 했다.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든 간에 공통된 의미는 시각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진술하였다.

미술치료란 창작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므로 원만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심리 치료법이다. 이러한 미술활동을 통해서 심리치료가 가능한 것은, 미술을 통한 작품 활동이 우리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세계를 우리의 외면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 속에 작품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게 한다는 창작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술치료는 이러한 창작을 통한 내면세계의 외면화 과정 속에서, 개인의 갈등적인 심리상태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연류된 갈등관계에 있는 심리, 정서적인 요소를 미술활동을 통하여 조화 있게 해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심리적인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혼란스런 정신구조를 재편성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미술치료는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치료법에서의 공통된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은 시각예술이란 것을 통해서 인격형성 및 이상적 자아형성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울만(Ulman)에 의하면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단어와 ‘치료’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경우의 미술의 의미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상징적 호화로 정신 분석학적 정신치료 방법의 수단의 하나로 미술치료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대표되는 학자는 나움버그(M.Naumburg)¹⁵⁾를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술에 중점을 둔 경우에는

15) M.Naumburg: 초기에는 교육자로서 활동하였고 후기에는 심리학, 특히 정신분석을 공부하여 미술 치

예술 창조의 경험은 치료적인 효과를 갖게 되므로 마음이 병든 사람을 도와 주는데 그것은 예술이 현실과 상상의 세계,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만나도록 하는데 적합하다고 보는 것으로 크래머(E.Kramer)¹⁶⁾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미술치료는 궁극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그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미술치료의 장점

와드슨(H.Wadson)¹⁷⁾은 미술치료의 입장이나 성격에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미술치료의 장점을 다음의 6가지로 말하고 있다. ¹⁸⁾

첫째,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다. 우리는 심상으로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말이란 형태를 취하기 전에 심상으로 사고한다. 즉, 엄마라는 말을 하기 전에 『어머니』의 심상을 떠올릴 것이다. 삶의 초기의 경험이 중요한 심상의 요소가 되며, 그 심상이 성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미술 치료에서는 꿈이나 환상, 경험이 순수한 언어적 치료법에서처럼 말로 해석

료자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치료적 관계형성과 전이와 역전이의 해결, 자유연상, 자발적 그림표현과 그 해석, 그림의 상징성 등을 중시한다. 결국 프로이트와 융, 그리고 설러번(Sullivan)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학자들은 나움버그의 이론을 심리치료 과정에서 그림을 매체로서 이용하는 "치료에서의 미술"(Art in therapy)로 구분하기도 한다.

16) E.Kramer: 아동미술치료연구가, 나움버그의 견해와는 다르게, 치료자의 역할을 환자가 만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승화와 통합과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크래머의 견해를 가리켜 작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치료라고 보고, '치료로서의 미술(Art as therapy)'로 표현하였다.

17) H.Wadson: 상담가, 치료자와 내담자 관계를 'therapeutic alliance'(치료동맹)으로 설명한다. 한 사람(치료자)이 다른 사람(클라이언트, 혹은 내담자)에게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둘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18) 한국미술치료학회(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p. 45.

하기보다는 심상으로 그려진다. 예술매체는 종종 심상의 표출을 자극하는 즉, 일차적 과정의 매체를 자극하여 창조적 과정으로 나아가게 한다.

둘째,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아 내담자의 방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방어이다. 우리는 어떤 다른 의사소통 양식보다 언어화시키는 작업에 숙달되어 있다.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는다. 예상치 않았던 작품이 그림이나 조각에서 제작될 수 있는데 가끔 창작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미술치료의 가장 흥미 있는 잠재성 중의 하나이다. 예상치 않았던 인식은 가끔 환자의 통찰, 학습 성장으로 유도되기도 한다.

셋째,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를 즉시 얻을 수 있다. 즉,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 볼 수 있는 자료가 환자로부터 생산되는 것이다. 미술의 바로 이런 측면이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예컨대 환자가 만든 어떤 유형의 대상화를 통해서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하나의 다리가 놓여진다. 저항적인 환자들의 경우는 환자를 직접 다루는 것보다 그들의 그림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의 감정이나 사고 등이 그림이나 조소와 같은 하나의 사물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고 개인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 어떤 환자는 단 한번의 작품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저항이 강한 사람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넷째, 자료의 영속성을 들 수 있다. 미술 작품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만든 작품을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하여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때로는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기도 하며, 환자 자신도 이전에 만든 작품을 다시 보면서 당시의 자신의 감정을 회상하기도 한다. 즉, 그림이나 조소가

주관적인 기억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작품 변화를 통하여 치료의 과정을 한 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치료팀의 회의에서도 작품을 통해 그 환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다섯째, 미술은 공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는 일차원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다. 대체로 한 가지씩 순서대로 나간다. 미술 표현은 문법, 통사론, 논법 등의 언어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 즉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것이며 시간적인 요소도 없다. 미술에서는 공간 속에서의 연관성들이 발생한다. 이를테면, 우리가 가족을 소개할 때에도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두 분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그들의 관계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식구들과 나와서 관계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미술의 공간성은 바로 경험을 복제한 것이다. 우리는 나의 가족을 말로 소개하고 그림으로 그것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가깝고 먼 곳이나 결합이나 분리, 유사점과 차이점, 감정, 특정한 속성, 가족의 생활환경 등을 표현하게 되므로 개인과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기 쉽다.

여섯째, 미술은 창조성이 있으며 에너지를 유발시킨다. 미술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개인의 신체적 에너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미술작업을 진행하고, 토론하며, 감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에는 대체로 활기찬 모습을 띤다. 체내의 에너지 정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느낀 사람이 많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창조적 에너지』의 발산이라고 해석된다. 연극이나 영화에서 역할을 맡은 배우처럼 미술치료는 하나의 작업이라기보다는 놀이와 레크레이션과 음악과 열정이 있는 창조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미술치료의 필요성 및 효과

폴리(Foley)는 치매에 걸린 사람들에게 어떤 잔여 능력과 기능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임상자들은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 미술치료는 치매환자들의 현재의 모습 또는 과거의 모습 속에서 꺼져가고 있는 가냘픈 빛들을 반영한다. 그리고 치매환자가 혼동 상태 속에서 표현하고 이해하고자 힘쓰는 바로 그 생소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캐슬린(Kathleen)은 초기수준, 중간수준, 심각한 수준 등 모든 수준의 치매를 통틀어, 이 모든 집단에 미술치료를 적용하는 보편적인 근거는 미술매체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²⁰⁾ 말을 통한 언어는 이제 더 이상 무용한 반면에, 미술은 느낌에 접근할 수 있고, 인지를 초월하여 그 그림이 지니고 있는 색상과 특성의 감각적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미술매체는 환자와 일체가 되어 움직인다고 했다. 또 미술치료 과정은 처음에 불안정한 요소들을 야기하지만, 일단 창작활동에 몰입하게 되면, 더 나아가 든 성인일수록 인지 능력에 의존하지 않게 되며, 한편으로는 예술이 추억담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간적인 관심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미술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감정들이 표출하므로, 미술치료사는 애

19) myhome.netsgo.com/drdonsoo/list.html.

20) 단정와(2006), 「치매노인 인지기능과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0.

매한 의사전달 체계를 극복하고 혼동된 사고 체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미술재료를 탐구하고, 그 미술매체 자체의 감각적인 특성에서 쾌감을 발견한다고 했으며, 또 미술재료로부터 얻어낸 감각의 자극은 내담자가 자신의 감각적인 세계로부터의 정보를 균형 맞추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내부와 외부의 세계에 접함으로써 또 치료사에 의해 제공된 구조를 통해 약간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했다.

미술작업은 방어나 통제를 줄이고 상징적인 이미지에 의해 감정이나 사고를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에 의한 표현은 의식의 깊숙한 부분을 자극하여 가지개방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 언어를 통해 교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 간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²¹⁾

로웬펠드(V.Lowenfeld)²²⁾는 미술치료는 창작자의 감각과 감정의 체험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종종 신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체험에 관한 통찰력을 표현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으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은 계속유지하고 있으며, 창조적인 과정은 다루기가 쉽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고는 진술해왔다. 예술은 그의 혹은 그녀자신의 발달수준에서 개인의 감정, 의견, 정서를 제시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해왔다.²³⁾

캐슬린(Kathleen)은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좌절감, 분노, 슬픔, 기쁨의 모

21) 권기덕·김동연·최외선(1993), 『가족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p. 121.

22) V.Lowenfeld: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대표적인 학자로 어린이의 창의적이고 정신적 성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지각하고 생각하는 창의적인 어린이로 발달시키는 수단으로서 미술을 보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사의 지도를 강조하였다.

23)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pp. 329~336.

든 범위의 감정을 체험하지만 종종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미술치료를 감정의 정서적인 유출에 대한 전달과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그들이 그 당시 체험한 것을 그림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²⁴⁾

어떤 사람은 미술재료를 탐구하고, 그 미술매체 자체의 감각적인 특성에서 쾌감을 발견한다고 했으며, 또 미술 재료로부터 얻어낸 감각의 자극은 내담자가 자신의 감각적인 세계로부터의 정보를 균형 맞추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내부와 외부의 세계에 접함으로써 또 치료사에 의해 제공된 구조를 통해 약간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미술작품의 도움을 받아, 알쯔하이머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의 상실된 능력들을 자각하게 되고 그들 자신들의 정체성, 즉 자아의식을 복돋우게 될 수 있다고 서술했다.

엘링슨(P.Ellingsen)은 중복장애와 감각장애를 가진 노인들에게 잡지의 사진을 오려 놓은 다음 환자가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여 치료자가 손을 잡고 함께 붙여나가는 포토몽타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²⁵⁾

집단미술치료는 노인으로 하여금 미술활동과 토론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에너지를 쏟게 하며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미술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기노출을 돕는 집단 상담치료 방법이므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상담기법의

24) 김형희(2009), 「색채경험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1.

25) 김동연·최외선(1993), 『성인미술치료』, 동아문화사, p. 91.

하나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²⁶⁾

치매는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일단 치매증상을 보이면 두뇌활동의 촉진, 좌우손발을 균형 있게 사용하여 뇌를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술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등의 활동이 좋다.

미술활동의 기본적인 요소는 색과 모양으로서 이것은 재료의 선택과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과정이며, 창조적인 생각 및 작업에서의 기본적인 요소는 경험을 연결시키고 경험들을 결합시키는 과정이다.

위니캣(D.W.Winnicott)²⁷⁾와 코헛(H. Kohut)²⁸⁾도 미술은 인간존재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그 자신의 세계와 그 주위 사람 속에 있는 존재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기도 하고 가끔 부담스러워 하기도 한다. 우리는 미술에서 종종 지나치게 부담을 안고 있거나, 그 자신의 세계와 그 세계의 스트레스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런 사람에게 미술작업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활동이 될 수 있다.²⁹⁾

미술치료는 아동, 청소년, 노인, 가족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정신병, 정서장애, 학습장애, 행동장애, 정신지체, 신체장애를 겸한 중복장애, 암환자, 치매환자, 약물중독자, 강간이나 성폭행, 전쟁 등 심리적 외상을 경험

26) 류정자(2000),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학습된 무기력 및 우울 정서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8~29.

27) D.W.Winnicott: 소아과 의사, 대상관계이론 정신분석가, 중간대상이라는 개념과 참자기와 거짓자기에 대한 아동 발달에 있어 초기 환경 박탈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28) H. Kohut: 정신분석가, 자기에이론 주장-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는 자기애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 '동기'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무의식세계이다. 인간의 기본적 심리적 욕구를 상해해 정신분석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29) 윤종호(2000),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8.

한 사람들의 심리진단 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자기표현이 어려운 내성적인 사람에게 있어 비언어적인 미술치료는 별다른 저항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심리치료방법이다.

3. 치매노인 미술치료에 대한 선행연구

미술치료 자체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치매노인과 접목된 논문도 활발히 연구된 기간이 길지 않고 문학이나 다른 연구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광범위 하지 못하다.

선행된 연구들은 우울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불안 초조 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억장애와의 상관성 및 회상요법 등의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술치료는 미술치료가 가지고 있는 심리치료적 속성 때문에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작품을 창조하거나 생산된 작품을 차례로 진열하여 회상하게 하는 것은 치매에 크게 도움이 되고, 미술이 갖는 창조성은 노인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술은 언어이므로 심상의 표출과 함께 도식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본인의 욕구와 동기를 표출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활을 드러내므로 언어장애를 보이는 치매에게는 언어치료에도 효과가 크다.³⁰⁾

홍정현³¹⁾의 연구에 의하면, 치매는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일단 치매

30) 한국미술치료학회, 전계서, p. 31.

31) 홍정현(1990), 「노인의 학습무기력 및 개념화 양식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2.

증상을 보이면 두뇌활동의 촉진과 좌우 손발을 균형 있게 사용하여 뇌를 고르게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 한편 예술 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등의 활동이 좋다고 하였다. 김동연, 신현옥³²⁾은 미술치료는 치매노인의 행동 통제에 많은 효과를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류정자³³⁾는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는 동안 치매노인들은 행동이 향상되고,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박소영³⁴⁾은 치매나 뇌졸중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또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기회를 주어 본인의 능력에 따라 선, 색, 형태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법으로 성취감과 편안함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얻게 하여 지적활동과 인지적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윤영옥³⁵⁾은 미술의 공간성은 치매가 보이는 시공간개념의 상실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미술이 갖는 창조성은 노인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심상의 표출과 함께 도식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본인의 욕구와 동기를 표출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활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김동연, 최외선³⁶⁾은 미술작품의 도움을 받아,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의 상실된 능력들을 자각하게 되고 그들 자신의 정체성, 즉 자아의식을

32) 김동연·신현옥(1997), 『치매노인의 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제6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pp. 141-160.

33) 김동연·최외선, 전게서, p. 99.

34) 박소영(2001), 「여성적 소재를 통한 유미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본인의 관화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4.

35) 윤영옥(2001),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4.

36) 김동연·최외선, 전게서, p. 67.

북돋게 될 수 있다고 서술했다. 또한 중복장애와 감각장애를 가진 노인들에게 잡지의 사진을 올려 놓은 다음 환자가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여 치료자가 손을 잡고 함께 붙여나가는 포토몽타쥬 기법을 활용한 미술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영희³⁷⁾는 집단원들이 동일한 주제로 그림을 그리거나 협동 작업을 함으로써 서로 좀 더 가까워지게 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어 우울 성향을 감소시키는 과정으로써 집단원들은 집단 활동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통이 자신에게만 독특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 중 김영숙, 류정자, 박선민, 윤종호³⁸⁾등은 미술치료가 인지기능이 떨어진 치매노인들에게 시지각과 손의 협응 작용을 통해 두뇌활동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최외선, 이근매, 김갑숙, 최선남, 이미옥³⁹⁾은 현재 또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기회를 주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선, 색채, 형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성취감과 편안함,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얻게 하여 인지적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미술치료는 다른 심리치료 방법과는 달리 의사표현 능력이 감소되

37) 김영희(2007), 「집단미술치료가 치매위험군 노인의 기억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6.

38) 김영숙(1997), 「치매노인 재활을 위한 주간보호(Day Care)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9.

김동연·최외선, 전게서, pp. 98~99.

박선민(2005),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성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81.

윤종호, 전게서, p. 83.

39) 최외선·이근매·김갑숙·최선남·이미옥(2006),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학지사, p. 72.

어 있는 노인들에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미술매체를 이용한 회상과정을 통하여 자아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지능력 유지나 증진의 효과와 우울 성향의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정화기능을 통한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켜주고, 억압된 감정표출을 통하여 노인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에 활용하여 에너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치매노인 미술치료의 필요성

치매는 신경인지기능의 감퇴로 인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수행능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현재까지는 발생기전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자는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고 환자가 스스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최대한 유지하고, 치매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인지기능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약물치료 및 심리사회적치료가 행해져야한다.

치매의 치료법으로는 크게 의학적 치료와 사회환경적 치료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치매는 특성상 비가역적이고 명확한 병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 원인적 치료가 어려우므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⁴⁰⁾

치매의 의학적 치료로는 우선적으로 약물치료를 들 수 있는데, 인지기능

40) 이정희(1997), 「치매환자 간호- 진단과 치료적 접근」,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교재, pp. 7~10.

개선제와 우울, 불안, 수면장애와 같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이 사용되고 있으나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로서 효과가 크지 않다. 41) 이러한 점에서 보면, 미술치료는 미술치료가 가지고 있는 심리치료적 속성 때문에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작품을 창조하거나 생산된 작품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것은 치매에 크게 도움이 된다.

치매 미술치료는 그러한 가정적·사회적 심리 치료의 한 유형으로서,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떨어진 개인에게 현재 또는 과거의 기억을 미술활동을 통해 되살리는 기회를 주며 본인의 능력에 따라 선, 색, 형태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그로써 노인 개개인 스스로 성취감과 편안함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얻게 하여 지적활동과 인지적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치매노인 미술치료는 일반적으로 미술활동을 통한 노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문제점과 병을 완화하며 치료하는 것이다.

갈라허(Gallagher.S.M)⁴²⁾는 미술치료를 통한 회상과정이 노인의 긍정적인 삶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치매를 대상으로 연구한 크래머(Kramer)⁴³⁾는 치매노인의 배회행동이 감소되고 창조성과 주의력 집중 유지에도 미술치료가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미술치료가 도입·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고, 또한 임상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 치매노인들의 정서에 맞는 치매미술치료의 임상연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41) 홍정현, 전계서, p. 26.

42) Gallagher.s.m(1993), Celebration of Women's Lives: Geriatric Art Therapy Life Review. Masters Thesis(M.A)-Ursuline Collage.108.Masters Abstracts International.31(04)

43) Kramer.M.E, Rosellini & Robert A.(1984).The effect of learned helplessness training on subsequent task performance in children. :*Journal of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III. 치매노인 미술치료의 영향 및 효과

미술은 심신의 건강상 커다란 치료적인 역할을 한다. 치매노인을 위한 미술치료는 병을 앓고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노년에 들면서 동작의 어려움, 감각능력의 쇠퇴, 외로움과 소외감 등을 겪는 노인들에게도 이러한 상태를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미술의 치료적 역할은 창의적 활동을 근간으로 하여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건강한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⁴⁴⁾

미술이 인간의 생리와 인간 정신 또는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 미술을 심리적 효과와 정신적 효과로 분리 시켜서 생각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미술치료사들은 미술치료에 있어서 신체적인 과정을 통하여 심리적 과정에 효과가 미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미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나누어 볼 때 1)생리적 측면의 영향 2)심리적 측면의 영향 3)사회적 측면의 영향이 있다.

치매노인의 특성은 과거와 현실이 구분 되지 않고 행동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조그만 변화에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술치료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도구가 된다. 미술치료가 미치는 몇 가지의 영향은 어느 하나를 독립해서 생각하기보단 모두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4) 정여주(2006), 『노인미술치료』, 학지사, p. 55.

1. 미술의 생리적 측면의 영향 및 효과

미술에 있어 여러 가지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림이나 영상을 보았을 때의 뇌의 변화는 생리적 반응의 관찰이 가능하며 측정까지 할 수 있다.

최상균⁴⁵⁾은 영상이라는 시각정보가 두뇌에 반응되어 뇌혈류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심박수 증가에 의한 혈액공급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인체의 정상적인 신경계 및 혈액순환 메카니즘에 의해 뇌세포의 활성을 도움으로써 치매의 진행을 완화시키거나 호전시키는 작용과 함께 치매에 수반되는 다른 합병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미술이라는 매체에서 동영상, 사진, 그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처치하여 치매치료에 활용할 수 있고 유용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사람은 Alpha과장일 때 저항력이 높은 건강한 상태이고 창의적인 정신작용이 가장 활발해 진다고 하였다.⁴⁶⁾ 대뇌에는 오른쪽과 왼쪽의 두 개의 반구로 나누어져 있다. 양쪽 대뇌 반구는 운동 감각의 중추를 고루 갖추고 있어 오른쪽 반구는 몸의 왼쪽 반을, 왼쪽 반구는 몸의 오른쪽 반을 지배하고 있으나, 양 반구 사이에는 구조나 기능에 있어 긴밀한 상호 연락이 있다.

그러나 사람은 살아가면서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어뇌인 왼쪽 뇌가 현저하게 우위로 활동하는 버릇이 생겨서 행동적, 능동적,

45) 최상균(2004), 「영상을 통한 회상 자극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뇌혈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동서보원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4.

46) 이금선(2004), 「치매 노인 음악치료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 성산효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1.

현실적이며 의논하고 명량하지만 사물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고정적이다.⁴⁷⁾

이렇듯 하루 동안은 거의 왼쪽 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는 왼쪽 뇌를 쉬게 하고 그 동안 비 언어뇌인 오른쪽 뇌를 활동하게 함으로써 직관성, 상상력, 동시성, 수동성과 같은 것의 활성화를 시도하면 본래 쉬고 있던 ‘뇌력(腦力)’이 개발되어 발상력이 풍부하게 된다.

우뇌를 자극하면 대뇌 전두엽의 앞부분인 전두전야가 활성화된다. 동시에 우뇌와 좌뇌를 연결하고 있는 뇌량이라는 신경망을 통하여 좌뇌를 자극하는 것이 된다. 임상미술에서는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방법으로 뇌 전체를 자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⁴⁸⁾ 우뇌를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는 미술 같은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양쪽 대뇌 반구의 정도와 깊이는 다르지만 모두 미술적 자극에 의해 활동이 활발해 진다고 한다. 미술적 자극에 의해 피질의 더 많은 영역이 활성화되면 시상의 구조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내는 상호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시상 하부와 시상의 활동이 증폭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술은 시각 정보로 인체의 신경조직에 영향을 주어 호흡, 맥박, 혈압, 근육의 이완이나 긴장 등이 무의식적 생리 반응을 일으킨다.

노인미술치료사는 특히 치매환자, 뇌졸중 환자와 같은 내담자의 뇌손상과 뇌손상 부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황은진⁴⁹⁾은 미술활동 시 주로 사용하는 미술재료 색연필과 수채화물감을

47) 최상균, 전계서, p. 51.

48) 김선현·전세일(2006), 『임상 미술의 이해』, 이론과 실천, p. 22.

49) 황은진(2008), 「만다라 기법에서 매체에 따른 장애아동 어머니의 뇌파 변화에 관한 단일사례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7.

선정하여 만다라 기법으로 매체를 사용할 때의 뇌파를 측정하여 매체별 미술활동이 이완에 미치는 연구에서 색연필이 통제성이 강한재료이면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지만 본 연구 결과가 α 파의 변화량이 증가하고 β 파의 변화량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이완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만다라 기법의 영향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미술활동 시 선호하는 재료사용이나 표현하는 미술기법에 따라 이완작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미술에서 색의 치료적 효과도 높다. 소리의 주파수가 청각을 통해서 뇌에 작용한다면 색채의 파장도 시각을 통해 뇌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⁵⁰⁾

빛과 색은 망막을 통하여 뇌의 중앙에 위치한 송과선과 뇌하수체를 통제한다. 이곳은 우리 몸의 호르몬과 신경화학 물질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표현, 심장박동, 혈액순환, 동공의 움직임 등과 같은 반사적 기능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개인의 기분을 조절하는 작용도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빛과 색은 우리의 신체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에는 미술에서 색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양 의학 분야에서 색채 심리를 분석 한 플라시보⁵¹⁾효과와 예방의학적 치료 효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스에나가 타미오(Suenaga Tamio)⁵²⁾ 박사의 색채심리 연구에 따르

50) 황선영(2008), 「노년기 치료적 미술활동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0.

51) 플라시보(Placebo): 실제로는 치료에 생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약이 아닌데도 단지 환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복용함으로써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52) Suenaga Tamio: 일본의 색채심리학자, 심리학박사, 색채심리학을 체계화시킴으로 색채에 의한 멘탈

면, 색채는 정신적인 노화를 방지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지켜준다고 말한다.⁵³⁾ 색채를 사용하여 미술활동을 하면 뇌 속 창조활동의 장소인 전두엽에는 쾌감의 통로인 신경물질 도파민이 무제한 분비된다고 학자들은 말한다.⁵⁴⁾

노인의 인생에 있어 감정의 변화를 다양하게 겪는 시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고독감, 소외감, 고립감을 느끼는 시기다. 따라서 이러한 색의 치료적 특성은 미술활동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미술의 심리적 측면의 영향 및 효과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려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부터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신체적 행동의 불편으로 오는 불안과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고 본다. 초기 치매의 경우 거의가 가족들에게 발견되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부정적인 인지로 인하여 오는 좌절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져 치매가 빨리 진행 되는 경우도 있다. 치매환자들은 사소한 것에 목표 성취가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 자존심이 저하되면서 좌절감을 갖게 된다. 치매노인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도와줄 가족을 기다리다가 더 큰 상심을 하게 되고 그 후 매사에 조금씩 폭력적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케어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1960년부터 미술활동과 심리연구를 시작하면서 어린이 아뜰리에를 개설하여 색채심리의 기초연구를 시작, 그 후 어린이부터 일반인,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대상, 목적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유로운 색채표현이 정서의 안정과 인간의 잠재능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53) 황은진, 전계서, p. 31.

54) 권일현·최법진(2005), 「색채 심리가 노인 생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형예술연구논문집 제 6집, pp. 12~13.

미술의 심리적 효과로는 ‘은유적 의사소통이나 상징적 문제해결’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⁵⁵⁾인간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이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비언어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미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사표현과 의사소통의 또 다른 수단인 미술이라는 시각적 언어로서 노인이 심리적, 정신적 방향감각을 찾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생리적 기능의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미술이라는 다양한 표현방법과 그림에서 보여지는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며, 연상과정을 통해 내적 세계의 인식과 더불어 상호간의 역동적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 심층적 감정을 배출시켜 자신의 태도, 느낌, 분위기 등을 전달하는 도구로도 사용됨으로써 자기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미술은 상상력과 지적능력을 자극하여 기분을 전환시키기도 하며, 그것의 폭을 연장시켜 우울증 환자의 우울한 사고도 전환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체적 움직임에 유도할 수도 있다. 또 주요한 심리적 문제인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부드러운 재료를 이용해 미술활동을 하며 환자를 이완시키고, 다양한 재료를 경험하면서 환자의 활동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프로이트(S.Freud)⁵⁶⁾는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무의식 내용을 다루며, 억압

55) 정여주, 전계서, p. 55.

56) S.Freud: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히스테리환자를 관찰하고 최면술을 행하며,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꿈·착각·해학과 같은 정상심리에도 연구를 확대하여 심층심리학을 확립하였다.

된 정동과 잠재된 심리적 갈등내용을 미적 상징으로 응축, 치환, 이차적 작업, 폭로작업 등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융(C.G.Jung)⁵⁷⁾은 내담자의 내적 심상을 표현하는 미적 활동은 인간의 무의식에 있는 원형적 형상을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그림 표현을 통한 상징화는 집단무의식과 원형적 그림과 관련하여 개성화 단계로 이르게 하는 치료적 역할에 중요하다고 하였다.⁵⁸⁾ 이와 같이 노인들은 노년기 특성에 속하는 죽음의 주제와 관련된 불안, 분노, 두려움 등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시각적이며 비언어적 상징표현을 통하여 소망과 욕구뿐만 아니라 갈등을 단계적으로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노인들은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표현욕구와 의식적, 무의식적 소망과 동기를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며 감정을 순화시키고 심리적 갈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게 된다.

3. 미술의 사회적 측면의 영향 및 효과

미술치료의 또 다른 목적은 미술을 통하여 과거의 사람들을 상기시키는 것보다 현실 재인식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치매나 중풍 등 일시적인 생각의 혼란으로 고통 받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생각의 혼란과 감각이 없는 치매환자들도 미술치료를 함으로써 훨씬 효과적으로 지적인 사고 단계를 회복하며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환경에 잘 적응 한다.

57) C.G.Jung: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연상실험을 창시하여, S.프로이드가 말하는 억압된 것을 입증하고, '콤플렉스'라 이름붙였다. 분석심리학의 기초를 세우고 성격을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눴다.

58) 정여주, 전제서, p. 63.

심한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치매환자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적절한 미술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면 개인 관계가 향상되는 것을 보기도 한다.

미술의 사회적 측면의 효과는 와드슨(Wadson)⁵⁹의 집단미술치료 효과에 잘 집약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다.

첫째, 자발적으로 많은 경험을 표현하게 해준다. 집단초기 집단원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도 싸인펜, 가위, 풀 등의 미술재료는 각 개인에게 쉽게 경험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미술치료는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먼저 미술재료에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표출이 위협적으로 느껴져 집단을 회피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셋째, 작품자체가 집단과 개인에게 상징적으로 의미를 줄 수 있어,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내담자에게도 자기표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넷째, 집단원 모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어 개인적 경험과 집단 경험을 함께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작품은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다양한 의미를 주고 집단원 간의 개인차와 보편성을 쉽게 인식 할 수 있다. 다섯째, 미술은 상호작용을 쉽게 유발시키고, 의식의 검열을 적게 받도록 하기 때문에 집단 진행 과정을 촉진시킨다. 미술활동을 통해 개인적 삶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는 능력, 생활 적응력,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관계의 통합성의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술은 시공간적인 예술로서 미술이 시간 속에서 진행될 때 환자들의 현

59) 정혜란(2006), 「집단미술치료가 치매 노인의 의사소통 및 정서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실적인 참여와 역동력을 불러일으키며 치료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동연·신현옥⁶⁰⁾은 집단 미술활동을 통하여 회상과정이 기억을 되살린다고 밝혔으며, 윤영옥⁶¹⁾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개인 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무기력의 감소와 자신감의 생성, 사회성의 증가, 웃음소리가 커지며, 인물상에서 몸통을 나타내는 등의 변화를 나타냈다고 밝혔으며,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경영⁶²⁾은 65세 이상의 여성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대상자 중 몇 명이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였고 집단 미술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되었지만 집단 안에서 공동작업을 통하여, 작품에 관한 토론시간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을 관찰하면서 자기중심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집단 공동의 목표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활동이 환자들에게 의사소통능력과 행동 및 정서에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사회성 향상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60) 김동연·신현옥, 전게서, pp. 141~160.

61) 박소영, 전게서, pp. 56~58.

62) 이경영(2002),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4.

IV. 치매노인 미술치료의 접근과정 및 적용

1. 치매노인 미술치료 기법

미술치료는 개별치료와 그룹(집단)치료의 두 가지 기법으로 나누어진다. 치료를 계획하면서 대상 치매노인이 일 대 일의 개별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룹(집단)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치매노인이 너무 소극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또는 치료의 목적 자체에 치료사와의 일 대 일의 가까운 관계형성을 높이는 경우에 쓰는 기법이다. 일 대 일 세션은 개인 사생활 보장의 입장이 중요한 이유가 되거나 치료사의 관심이 나누어지지 않고 전폭적으로 지지됨을 인정 시켜야 할 경우에도 해당 된다. 치매노인은 현실에서 자신이 불필요 한 존재이며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존감의 상실을 겪고 있다. 개별 치료기법은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기법이다.

그룹(집단)치료 기법은 사회적인 발달이 요구되는 초기 또는 중기 치매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법이다. 우울증으로 기인된 여러 사회적 기능들을 그룹(집단)치료를 통해 이전의 기능으로 회복시켜 주는 치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기법은 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치매노인에게 그룹(집단)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긍정적인 삶을 유지시킨다.

또한 치매 노인 미술치료는 그 외에 심리 치료적 맥락에서 행동치료 기법의 하나인 인지 행동적 접근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미술치료의 목표는 기억력유지, 현실인식 같은 인지적 영역, 배회, 동요

등의 행동적 영역, 긴장이완, 자기표현, 사회교류 등의 사회, 정서적 영역에 역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

1) 인지적 영역의 기법

치매환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 특징과 초기 증세의 하나는 인지적 기능의 쇠퇴이다. 치매노인은 두뇌 활동의 촉진과 좌우손발을 균형 있게 사용하여 뇌를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활동이 치매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다.

인지적 미술치료는 인지학습을 통해 일반적인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진다. 실버(R.Silver)⁶³, 피아제(J.Piaget)⁶⁴ 등은 미술과 인지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한 심리학자이다. 실버(Silver)는 그림의 관찰을 통해서 공간개념을 발달시키고, 계열적인 순서에 대한 개념을 개발하고, 그림자극을 통하여 부류의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신경학적 손상에 유용하다고 하였다.⁶⁵

색채의 농담을 혼합해 가면서 계열성 개념을 개발하거나 관찰화를 통한 공간 개념의 개발, 찰흙으로 모양 꾸미기를 통한 공간과 순서와 부류의 개념을 발달시키는 등 미술치료의 인지적 활용의 예이다.

63) R.Silver: 언어적지능과 다른 시각적-공간적 지능을 재는 검사기법(실버 그림검사 SDT)을 만들.

64) J.Piaget: 스위스의 철학자, 자연과학자이며 발달심리학자이다. 어린이의 학습에 대한 연구인 인지발달이론과 자신의 인식론적 관점인 “발생적 인식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55년 제네바에 발생적 인식론 국제 센터를 창립하였고, 1980년까지 지도적 위치를 맡았다. 에른스트 폰 글라저스펠트(Ernst von Glasersfeld)는 피아제는 “구성주의 인식론의 위대한 선구자”라고 했다.

65) 김민정(2008),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시공간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천의과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4.

미술치료는 시각적 치료를 통한 수 개념, 시공간 구성 등을 익혀 의식혼돈, 지남력의 상실, 사회적 고립, 무로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노인환자의 의식혼돈을 예방하고 지남력을 갖도록 하며 미술작품을 통하여 집중력과 주의력, 기억력을 요구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심리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미술의 공간성은 치매가 보이는 시공간 개념의 상실을 회복하는데도 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매를 대상으로 연구한 크래머(Kramer)는 치매노인의 배회행동이 감소되고 창조와 주의력 유지에도 미술치료가 효과적임을 입증하였고 미술활동이라는 과정을 통해 운동기능과 인지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따라서 미술치료과정은 노인들의 활동력을 강화시켜 주고 퇴화되는 뇌 세포에 자극을 줌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기억과 회상, 시공간개념의 상실을 회복시켜준다. 갈라허(J.J.Gallagher)는 치매노인에게 있어서 초기에 언어적인 표현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미술치료를 통한 회상과정이 노인의 긍정적인 삶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⁶⁶⁾

인지적 기능이 손상된 치매노인의 미술치료는 치매의 인지적인 혼란을 꿰뚫을 수 있으며,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고립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주며, 특히 그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과제나 자극을 주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중복장애와 감각장애를 가진 노인들에게 잡지의 사진을 오려 놓은 다음 환자가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여 치료자가 손을 잡고 함께 붙여나가는 포토

66) 단정화, 전계서, p. 18.

몽타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치료가 효과 있다고 엘링슨(Ellingsen)은 말했고, 치매노인도 반복훈련에 의하여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관계가 증진되고 집중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환자 본인의 능력에 따라 선, 색, 형체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로 성취감과 편안함, 정서적 안정을 얻게 하여 인지적 수행능력과 지적활동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 행동적 영역의 기법

치매환자가 기관(단기 보호소, 병원, 그룹 홈, 요양소, 너싱홈)에 입원할 때는 기억상실의 문제보다 배회, 공격성, 무절제 그리고 동요 등의 행동적 문제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미술치료가 문제행동의 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미술치료 후 치매환자들은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관계가 좋아졌으며 불평불만이 감소되었고, 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소리를 지르는 것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비행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자상을 하고 보조자들이 목욕시키면서 꼬집어서 생겼다고 이야기하며 팔을 걷어서 상처를 보여주고 하던 행동이 치료 후 팔이나 다른 곳에 상처를 내는 일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물건을 마구 거두어들이거나 물건을 침대 시트 밑에 감추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이불 속에 감추어 두는 것과 같은 행동이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⁶⁷⁾

67) 김정숙(2008), 「집단미술치료가 요양시설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

미술치료는 미술을 매체로 하여 생활문제 해결에 필요한 태도와 자기관리 능력을 습득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서 치매노인의 행동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정서적 영역의 기법

미술치료는 치매환자의 병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여러 기능의 감퇴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사회적 관계증진과 성취감을 갖게 하여 삶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치매노인에 있어 미술치료는 미술작업을 통해 신체감각을 살릴 수 있어서 잔존기능을 보존 발전시키며, 창조적 작업이 정서를 순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표현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욕구나 충동, 갈등의 해소를 돕는다.

캐슬린(Kathleen)은 미술활동의 기본적인 요소는 색과 모양으로서 이것은 재료의 선택과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과정이며 창조적인 생각 및 작업에서의 기본적인 요소는 경험을 연결시키고 경험들을 결합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좌절감, 분노, 슬픔, 기쁨의 모든 범위의 감정을 체험하지만 종종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미술치료는 감정의 정서적인 유출에 대한 전달과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그들이 그 당시 체험한 것을 그림으로서 준비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⁶⁸⁾

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6~58.
68) 단정화, 전게서, p. 17.

로웬펠드(Lowenfeld)는 미술치료는 창작자의 감각과 감정의 체험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종종 신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체험에 관한 통찰력을 표현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으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은 계소 유지하고 있으며 창조적인 과정은 다루기가 쉽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진술했다. 69)

미술은 치매노인의 작업수행의 결과물을 보여주며, 변화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그림은 그가 관심을 갖는 내용과 심리상태가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자기 통찰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치매노인 스스로 자신의 변화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긍정적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됨으로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통제력을 키워준다. 미술치료시간에 만들어진 결과물을 통해 상실된 능력을 지각하게 되고 그들 자신의 정체성 즉 자아의식을 북돋우게 된다. 미술치료 활동 중에 나타나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자기이해와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분위기와 비 위협적인 과제를 제공받음으로서 창조성에 초점을 두고 주의력,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미술치료는 노인들에게 긍정적 정신건강의 활력을 주고 고립감과 무기력을 감소시키고 촉진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증진에 효과적이다.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성이 증진되고 치료자와 집단 원 간의 적절한 관계형성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으로부터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에 치매 노인들에게 있어 상호작용의

69) 단정화, 전게서, p. 17.

효과는 가족 내에서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적절한 방법을 배움으로써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미술작업을 통해 신체감각을 살릴 수 있어서 잔존기능을 보존 발전시키며, 창조적 작업이 정서를 순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표현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욕구나 충동, 갈등의 해소를 돕는다. 그림을 통한 대화와 회상작업 등으로 언어능력을 유지시키며, 남아 있는 기억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현실감각을 부여한다. 사진의 작품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축소된 사회로써 집단경험을 통하여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며, 집단 상호간에 적응력을 길러준다는 것이다. 미술치료를 받았을 때 치매환자들은 생리적 반응과 심리적 반응을 일으킬 뿐 아니라, 정서적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술치료기법은 환자를 위한 치료적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2. 치매노인 미술치료 접근과정

치매노인을 위한 미술치료 접근은 감각 유지를 위한 활동, 현실 인식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활동, 동기유발을 위한 활동, 오락과 여가선용을 위한 활동, 과거 회상을 돕기 위한 활동,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높여주기 위한 활동 등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자가 고령자를 치매의 초기단계에서 말기로 요양원 생활까지 지켜 본 경험으로 보아도 미술치료의 여러 방법의 접근은 정서적으로나 초조행동에 감소를 보였다. 예를 들어 초기단계에 심한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본인이 좋아하는 예쁜 꽃이나 색이 있는 그

림이나 사진을 보여주면 여러 이야기를 하며 이내 우울감에서 벗어나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주위환기가 되어 그 시간 이후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다음의 여러 가지 활동이 다각적인 측면의 미술치료 접근을 뒷받침 해준다.

1) 감각 유지를 위한 접근 과정

치매 노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미술치료는 감각기관 훈련 접근이다. 이것의 주된 목적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환경과 접촉하도록 하여 사회적,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 방법은 대개 간단하고 구조적인 활동을 통해 대상자가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때로 미각과 후각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감각훈련은 모든 기능의 대상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특별히 심한 장애를 가진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감각훈련은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현저히 낮은 기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훈련으로써, 이 경우 그들의 제한되고 극히 짧은 집중력과 운동기능을 감안하여 간단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 활동의 목적으로는 신체 인식, 대소 근육 기능 향상, 사회적 교류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말을 통해 교류하는 활동은 최소화되며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된다.

감각훈련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

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억력과 운동 기능을 증진하고 타인과의 원활한 교류를 가지도록 권유한다. 일단 이 단계에서 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교류를 갖도록 하지만 활동의 내용이나 구조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감각 유지를 위한 활동의 예로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카드를 나눠주고 치료사가 색깔을 말하면 그 색을 가진 모든 사람이 손을 들기, 음악 감상 후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색이나 단어를 보여주고 떠오르는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등을 들 수 있다.

2) 현실 인식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접근 과정

현실 인식은 감각훈련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과정이다. 이것은 시간, 장소, 사람을 포함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 환경에 대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시킴으로써 현실 접촉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의 목적은 자신의 환경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양로원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오기 쉬운 개성의 상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실 인식을 위한 치료 활동 중에는 시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계절이나 특정한 기념일에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질문하거나 소재를 유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반복적으로 달력을 만들고 오늘이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인지, 현재 몇 시이며 무슨 계절인지 달력만들기, 시계만들기, 계절작업 등을 통해 자신과 환경에 대한 현실적 감각과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현

실적인 정보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동료들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에 있어 다른 차이가 나타난다.

3) 동기 유발을 위한 접근 과정

치료적 목적으로서의 동기 유발은 사고와 언어 교류를 자극함으로써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접근 과정이다.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앞의 두 활동에서보다 더 오랜 집중력과 지속력이 요구되는데, 이 활동 역시 잘 짜여진 내용을 가지고 치료사의 의도에 의해 진행된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치료사가 근래에 이슈가 되는 뉴스나 지나간 행사들,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 주제에 관해 토론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미술은 동기 유발에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은 미술 표현이 어떤 특정한 토의 주제를 유도하는데 적절히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의 이야기를 주제로 토의하고 싶을 때 당시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그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떠올려진 특징적 기억에 대해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 언어적인 표현 외에도 비언어적인 표현으로까지 광범위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표현은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치매노인 미술치료의 적용

치매 노인들은 거동의 부자유로 인해 운동량이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가벼운 움직임과 동작을 포함한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신체적 도움을 주는데 적용할 수 있고, 나아가 스트레스로부터 주위를 환기시켜 긴장이완을 가져오게도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신체감각운동을 할 수 있다. 점토를 이용한 새알심 만들기 등의 소근육 운동부터 점토를 던지기, 제시된 같은 색을 찾아깃발 들기, 같은 색깔의 볼링 공 맞추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활동은 노인들의 신체 협응, 유연성, 집중력과 방향 감각을 증진시키고, 신체동작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며, 즐겁고 긍정적인 그룹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만족을 경험하고 사회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동작들은 설명이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언어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환자라도 참여가 가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적용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에게 현재 또는 과거의 기억을 미술 활동을 통해 되살리는 기회를 주고, 본인능력에 따라 선, 색, 형태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⁷⁰⁾ 인지영역은 자기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인지기능이 향상되며 집중력을 증가시키고 장기기억의 회상과 단기기억을 유지시킨다. 또한 갈등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능력이 생기며 색 인지, 색 선택과 형

70) 정현화·이은지(2007), 『실제적용중심의 노인미술치료』, 학지사, p. 67.

태 감각이 증가된다. 그리고 상실과 의존에서 벗어나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다.

미술활동 과정에서 미술의 시공간성은 치매노인에게 시공간개념의 상실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가 큰 방법이다. 따라서 미술치료 과정은 노인들의 활동력을 강화시켜주고 퇴화되는 뇌 세포에 자극을 줌으로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치매노인은 두뇌 활동의 촉진과 좌우손발을 균형 있게 사용하여 뇌를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활동이 치매노인에게 도움이 된다.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활동으로는 지남력 향상을 위해 달력만들기 활동을 실시해 월~일, 1~31의 요일과 숫자를 순서대로 인지하고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도록 한다. 시계그리기활동을 통해 1~12의 숫자를 순서대로 인지하고 현재 몇 시인지 그리고 항상 치료자와 만나는 시간이 몇 시인지 기억하도록 해본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는 치료자가 알려 준 미술치료 방법을 이해하고 따라하는지, 작업 후 즉각으로 과정을 기억할 수 있는지, 반복활동시 기억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시공간적 기능향상 활동으로는 도형이나 구체적인 그림그리기 방법을 제시한다.

2) 과거회상에 적용

지나간 인생의 회상은 지나간 삶의 사건들과 경험들을 되돌아보는 것으로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그룹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때때로 우울증으로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치료사의 훈련과 경험에 의해 대개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된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과거회상은 치매노인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과거회상을 통해 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일들을 돌아봄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과거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소외감을 줄일 수 있고 현실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도 완화시킬 수 있다.

치료사들은 이와 같은 과거회상의 유익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인들의 오래된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는데 미술을 이용한 과거회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다. 최상균⁷¹⁾은 영상을 통한 회상자극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뇌혈류 변화에 영향을 줌으로써 현대영상물보다 과거 영상물을 보여주었을 때 시각정보가 두뇌에 반응하여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의 활성을 도움으로써 치매의 진행을 완화시키거나 호전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의 사진이나, 옷, 영화, 잡지 또는 개인 소장품을 사용하여 과거에 얽힌 경험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

특별히 미술은 토의를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적용될 수 있다. 미술활동을 통한 강한 연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술치료사들은 그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의 젊은 시절에서부터 각 5년 단위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진이나 기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적절히 사용한다. 연도별 이슈화된 사진이나 기사를 가지고 주제별 연상화 그리기 작업을 통해 그 시절의 추억이나 일을 회상하게 한다. 회상그림의

71) 최상균, 전게서, p. 44.

표현을 통해 그 시절의 느낌을 떠올리며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미술재료는 각 개인의 문화와 부속 문화, 배경에 따라 다르므로 대개의 경우 개인이 좋아하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양한 재료를 준비하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회상용품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회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룹에서 지나간 시절의 회상을 위해 여러 관련 사진이나 그림, 물건 등을 준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기억을 회상하는 물품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각자의 경험과 기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참여자들의 배경을 잘 살펴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종교적인 내용의 그림이나 사진, 물건은 그룹에서 혹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3) 오락과 여가선용을 위한 적용

치매노인들에게 있어서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는 활동을 다양하게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매일 20-30분씩 하루에 한두 번 미술활동을 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으면서 유익한 활동인데 꼭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 등의 방법을 하는 것만이 미술치료는 아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활동을 하는 것은 좋으나 주의해야 할 점은 매

일 고정된 똑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면 그 시간에 지루함을 느껴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다양한 미술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시간이 새롭고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해준다.

치매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미술 이용방법의 예들 들면, 매일 달력을 이용하여 오늘의 날짜를 확인하고 달력의 계절 그림을 보며 각 계절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또한 그림 퍼즐판을 이용하여 퍼즐 맞추기, 바느질방법을 이용하여 나만의 쿠션, 방석 만들기, 가족앨범을 보며 관련된 추억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좋아했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현해보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 활동들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하여 환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서 아주 적합하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미술적 방법의 실천을 통해 신체적인 기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신심리적인 면에서나 사회심리적인 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미술치료가 적용되는 세 가지 영역을 추가하자면 첫째, 의학적인 질환이 없는 노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기관에서 미술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양로원인데, 이곳에서는 같은 나이의 동료들과 함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고립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성이나 개인적인 역할이 현저하게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유성 상실과 함께 자긍심의 상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상실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이로 인해 우울증으로 빠

저들기도 하는데 이들을 위한 미술치료를 자신의 재발견, 창조적인 정신 활동, 그리고 자긍심의 회복에 중점을 둔다.

둘째, 약간의 의학적인 질병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노인들에게 미술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이들은 대개 의학적인 검사를 받거나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등 외부의 감독 하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므로 환경적 통제를 받게 되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정해진 스케줄과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전에 가졌던 외부와의 관계 유지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환경에 의해 자신이 조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재성과 자긍심을 회복하여 자신의 역할을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술치료는 이들을 위해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정하고 다른 사람과 협동하면서 활동하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나아가 자신의 존재성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셋째, 노인 치매를 포함한 심각한 노인성 질환 때문에 의학적, 사회적인 보살핌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이들 본인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이들이 처한 환경은 다만 죽기 전에 대기하는 마지막 장소로 생각되어 극히 수동적으로 환경에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정리하여 남은 시간 동안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급격히 쇠약해지는 상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미술치료 활동은 신

체와 정신의 재활을 도와 각종 복합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상에서 세 가지의 그룹을 지어 노인들의 환경을 구분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은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통적인 이슈는 이들의 집단 거주에서 일어나게 되는 개성의 상실, 자긍심의 저하, 감정 표현의 제한으로부터 신체적 재활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우울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창조적인 활동을 자극하고 특별히 과거의 기억을 더욱 발달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임상 활동을 한 치료사들은 노인들이 여전히 창의적이며 자신들을 개발시키고 더 나은 활동을 추구하는 데 왕성한 의욕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시력이나 청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미술치료의 내용이나 활동도 이를 감안하여 이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반면 미술적 표현에서도 노인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익숙한 물건이나 재료에 관심을 더 많이 보일 것이라 생각되어지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재료와 물건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신구의 재료를 목적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V. 치매노인 미술치료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치매노인에게 미술치료가 비약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도움이 되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치매노인에게 미술치료를 실시 하는데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 치료를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치매노인에게 미술치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개선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치매노인에게 미술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미술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치매노인 미술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일반인들은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정서적 우울감 및 인지기능향상에 약물치료와 비슷한 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약물치료가 치매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죽어가는 뇌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다양한 뇌 자극이 중요하므로 비약물적인 치료방법인 미술치료가 꼭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미술치료가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점과 그 효과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센터에서 강의 및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치료를 쉽게 접하도록 하고, 미술치료가 치매환자에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미술치료의 영역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한다.

먼저 미술치료가 임상 의 현장에서 다른 인접 치료 분야의 전문인들과 대

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치료의 임상적 용의 발전 이상으로 연구의 내용이 뒷받침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과학적인 접근 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실험적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홍보하여 일반인들에게 미술치료가 전문 분야임을 알려야 한다.

아직까지 미술치료가 병원에서 개발된 영역이지만 의학의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 자체의 개념도 시대를 따라 변해가듯이 미술치료도 그 고유성과 기능에 따라 치료의 영역을 폭 넓게 형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미술치료는 개개인에 다르게 작용하며 효과에서도 개인차가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 진단, 개인별 특성 및 미술적 성향 등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

미술치료는 치매노인의 증상, 성격, 환경 등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 개개인의 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치매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미술치료는 감정의 변화로 신체적인 변화까지를 끌어내야 하는 치료도구이다.

그러므로 치매노인의 미술적 재료 선호도나 좋아하는 색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미술치료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널리 보급되기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술치료가 도입되어 그 동안 일부에서 시행해 왔지만 아동중심 미술치료가 활성화되었고, 치매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미술치료는 아

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각 기관이나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매노인 대상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술치료사는 임상치료를 위한 전문인이므로 학문과 실천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다. 미술치료사에서 각 대상별 전문미술치료사가 필요하다. 각 대상별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전문미술치료사가 본인이 맞은 대상에 대해 깊게 연구하고 임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하고 체계적인 미술치료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또한 치매노인에게 미술치료가 인지적 기능향상의 효과가 있음에도 국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달체계가 미흡하다.

치매의 진단별, 환자가 살아온 배경별 특징에 맞는 다양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치매 등급별로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외에 경도인지장애로서 치매의 전단계의 환자들을 가려내서 예방으로써의 미술치료도 활성화 시켜나가야 한다.

급변하는 과학과 새로운 문명 생활을 맞아 미술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 되어야 하며 오늘날의 미술치료는 병원을 벗어나 국가적이고 지역복지 측면에서 예방의학의 하나로 그 임상의 무대를 넓혀가야 한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미술치료를 일부 부유층에서나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물리적 치료의 부수적 차원의 치료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치료가 보다 대중화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치매노인에게 물리적인 치료만큼 정신적이고 인지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먼저 홍보하고 아울러 미술치료로 안정을 찾고 인지기능이 향상되어 일상생활기능이 잘 유지되고 정상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효과에 대하여 폭넓게 인지 시켜야 한

다. 특히, 초기 재가 치매노인의 경우 가능하면 숨기려고 하는데 초기에 가족 중 누구라도 전문 치료사와 상담 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아직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시행 초기 단계라서 치매노인 미술치료를 대중화 시키는 데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차등의 교육과정을 두어 적어도 치매전문 병원이나 각 구의 치매센터에 요일제로라도 전문 미술치료사를 유치하여 많은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미술치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아울러 치매노인의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미술치료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VI. 치매노인 미술치료 프로그램 제안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다. 이 미술치료 프로그램들은 치매노인에게 치료적 미술활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치매환자에게 3가지 접근방법을 이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 인지기능 향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인지기능 향상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치매환자의 감퇴된 기억력을 회복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인지기능향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하고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치료활동이다.

본 연구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개별 및 집단미술치료에 모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매 회기마다 도입, 활동, 마무리단계로 각 단계의 소요시간은 도입과 마무리단계는 각 5~10분, 활동단계는 20~30분으로 구성하였다.

도입단계에서는 지남력(指南力)⁷²⁾ 과 기억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자신의 기분에 대해 언어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활동단계에서는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작품을 만들며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느낄

72) 지남력: 주위 환경 중에서 특히 자기가 처해있는 공간, 시간 및 상대하고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을 지남력(orientation)이라 하는데, 이것이 상실된 상태를 지남력상실(disorientation)이라고 한다.

수 있도록 한다. 마무리단계에서는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활동순서, 활동에 사용한 색, 모양, 수를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도입단계와 마찬가지로 날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지남력과 기억력을 유지하거나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진행구성은 <표1>과 같다.

표 1.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진행구성

단계	목표	활동	시간
도입	언어능력, 지남력 기억력	1. 인사를 하고 환자의 기분, 날씨, 날짜, 계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 지난 회기 활동을 기억하는지 확인한다.	5분~10분
활동	인지기능향상 정서적 안정	1. 활동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재료를 탐색한다. 2.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활동을 이해하고 수행하며 작품을 완성한다.	20~30분
마무리	언어능력, 성취감 인지기능향상	1.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느낌을 이야기한다. 2. 활동순서, 작품에 사용된 색, 모양, 수, 오늘 날짜와 다음 회기 만나는 횟수와 날짜를 확인한다.	5분~10분

인지기능향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1은 총 16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동기유발1,2 단계, 지남력강화(3~5회기), 시공간기능강화 1- 색 구분(6~8회기), 시공간기능강화 2- 공간능력, 수(9~12회기), 시공간기능강화 3(13~14회기), 일상생활능력향상(15~16회기)로 나누어 계획하였다. 동기유발1,2 단계는 미술치

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치료자와의 라포⁷³⁾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미술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고, 치료자가 환자의 인지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시공간기능강화 1,2,3단계에서는 미술치료에서 치매환자의 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공간기능강화작업을 통해 색, 공간, 형태, 방향, 모양 등을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일상생활능력향상 단계에서는 미술치료를 통해 시공간기능을 향상시켰다면 그것을 실제 일상생활에서 적용해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미술적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상생활활동과 연관을 지어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했을 때 적용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계획한 인지기능향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1은 <표2> 다음과 같다.

표 2. 인지기능 향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1

단계	회기	주제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재료
동기 유발 1	1	테칼코마니	* 제시된 화지를 반쪽으로 종이접기를 한 후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여 본다. * 제시된 수만큼 색을 선택하고, 제시하는 색을 구분하여 색을 선택한다. * 점차 물감의 색을 늘려가고 색의	작업에 흥미 유발. 집중력 향상 (우연의 효과를 통한 만족감과 미술표현에	수채화물감 8절화지 8절색지

73) 라포(Rapport): 두 사람(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상호신뢰관계를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

			<p>이름과 사용한 색의 개수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p> <p>* 화지에 제시된 위치에 제시된 수 만큼 물감을 찍어서 표현하여 본다.</p> <p>* 표현 후 작업과정에 대해 기억해보고 사용한 색, 수 인지한 후 연상되는 모양을 토의한다.</p>	<p>거부감을 감소시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p>	
<p>동기 유발 2</p>	<p>2</p>	<p>과일 포도 만들기</p> <p>1.포도-숫자 2.포도-요일 3.포도-점토</p>	<p>* 제시된 모양이 포도모양임을 인식하게 한다.</p> <p>* 제시된 포도모양의 포도 알 수를 인식한 후 모양에 맞게 색 스티커를 붙여나간다.</p> <p>* 포도모양에 제시된 수, 요일을 매칭하여 작업 후 색을 구분하고 색스티커를 붙여나간다.</p> <p>* 작업 후 수, 요일, 색 인지, 포도 계절 인지하도록 한다.</p> <p>* 제시된 포도모양을 인식하게 하고 포도알의 수에 맞게 만들어 올려놓고 만든 수 인지하도록 한다.</p> <p>* 포도를 보면서 과일이 나는 계절에 대해 인지하고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포도밭이나 포도 따먹기, 포도주 등에 대한 것을 기억하게 한다.</p>	<p>인지기능향상 (공간, 수, 모양, 색 인지) 기억력 향상</p>	<p>포도그림 종이, 색 스티커, 지점토</p>

지남력 강화	3	달력 만들기1 (계절/ 날씨 표현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적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공간을 붙이고 꾸며보며 계절에서 떠오르는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현재 몇 월이고 무슨 계절인지 인지하게 한다. * 그 계절에 특징적인 사물에 대해 생각해보고 표현해본다. * 다음시간의 달력의 그림으로 사용하여 기억하며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남력 향상 (계절, 날씨, 시간인지)	다양한 오브제 재료 (나뭇잎, 과일그림) 풀, 양면테이프 드로잉재료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4	달력 만들기2 (요일, 날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공간에 요일과 숫자를 순서대로 인지하며 붙여나가게 한다. * 전 시간 달력그림을 붙이고, 완성한 달력의 맨 위쪽에 몇 월인지 표시한다. * 작업 후 월, 요일, 날짜 확인하고 치료자와 만나는 요일과 오늘의 요일에 표시하고 인지하도록 한다. * 이 달력은 매 달 만들어 실제 치료가 있을 때 사용하며 날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남력 향상 (숫자, 날짜 개념, 시간인지)	요일 인쇄물, 숫자(1~31)인쇄물, 풀, 8절 색지
	5	시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모양을 인식하고 붙인 후 모양, 색 인지 한다. * 12, 6, 3, 9의 숫자를 고정시킨 	지남력 향상 (시간)	1~12숫자 인쇄물, 8절화지,

			<p>후 1부터 숫자를 순서대로 인식하며 붙인다.</p> <p>* 아침, 점심, 저녁시간을 말하게 하여 시침, 분침을 맞추어 보도록 한다.</p> <p>* 미술치료 시간을 기억하게 하고 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p>		<p>△한지, 풀, 시계바늘 종이, 크레파스</p>
시공 간 기능 강화 1-색 구분	6	색 습자지를 이용한 색 작업	<p>* 제시된 색 습자지를 손으로 찢어서 같은 색을 인식하고 구분하여 본다.</p> <p>* 제시된 색에 순서를 정하고 순서대로 색을 인지하며 붙여보게 한다.</p> <p>* 작업 후 사용한 색, 그림에 나타난 색의 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작업과정에 대해 순서대로 기억하게 한다.</p>	<p>작업이해력 향상 색 구분/ 변별력향상 작업기억력 향상</p>	<p>색 습자지, 8절화지, 납작 붓, 크레파스, 일회용 그릇</p>
	7	사포에 색 순서 작업 (손 그리기)	<p>* 사포에 재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하고 인식하게 한다.</p> <p>* 왼손을 사포위에 놓고 본떠 그려 나가며 손 모양을 인식하게 한다.</p> <p>* 그려진 손 모양 안에 적절한 높이로 선을 그어 공간을 나누어보고 인식하게 한다.</p> <p>* 치료자가 제시하는 색(빨,노,파)</p>	<p>신체 인식 강화 색 구분 능력 향상 작업 순서 인지 작업기억력 향상</p>	<p>사포 (220w) 크레파스</p>

			<p>를 고르고 색의 순서를 정해 순서대로 인식하며 색을 칠해나간다.</p> <p>* 작업 후 손의 방향, 사용한 색, 수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p>		
	8	<p>색종이 모자이크</p>	<p>* 제시된 3가지 색을 인식하고 순서대로 색을 구분한다.</p> <p>* 3가지 색종이의 띠를 교차로 옮겨가며 구성하여 본다.</p> <p>* 작업 후 사용한 색과 수, 과정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p>	<p>주의집중력 향상</p> <p>색구분,순서 인지</p> <p>작업기억력, 이해력향상</p>	<p>검은색 색종이, 색종이 띠, 풀</p>
<p>시공간 기능 강화 2- 공간 능력, 수</p>	9	<p>도형구성 작업1 (□, ○, △ 화지 공간 구성작업)</p>	<p>* □, ○, △의 똑같은 모양을 찾아보도록 한다. 크기와 색, 모양을 구분하고 인지한다.</p> <p>* 제시된 화지에 도형을 이용하여 서로 겹치지 않게 공간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본다.</p> <p>* 작업 후 같은 모양을 찾은 후 반복적으로 같은 모양과 색을 찾아 본다. 각각의 똑같은 모양의 개수도 세어본다. 그 뒤 수를 세면서 작업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p>	<p>시공간기능 향상</p> <p>색/모양 구분 및 변별</p> <p>인지능력 향상</p>	<p>□, ○, △ 모양색종이, 풀, 8절화지</p>
	10	<p>도형구성 작업2 (퍼즐작업) -똑같은</p>	<p>* 8절 화지에 제시된 그림을 유심히 본다.</p> <p>* 그 모양과 맞는 부분을 찾아서 도형을 맞추어 본다</p>	<p>시공간기능 향상</p> <p>색/모양 구분 및 변별</p>	<p>□, ○, △ 모양색종이, 풀, 8절화지</p>

		모양, 색, 찾고 맞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후 같은 모양과 색, 위치 등을 구분하고 인지하도록 한다. * 작업과정을 기억하도록 한다. 	인지능력 향상	
11		도형구성 작업3 (도형을 이용한 고향풍경 꾸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도형과 색, 크기를 구분하고 인식하도록 한다. * 치료자가 제시하는 모델링 순서를 보며 같은 도형을 찾아 화지에 적절하게 순서대로 구성하여 본다. * 제시된 순서로 작업 후 완성된 모양에 대해 인지하고 연상되는 것, 회상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꾸며본다. * 작업 후 모양, 색, 방향, 위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 	시공간기능 향상 색/모양 구분 및 변별 인지능력 향상	□, ○, △ 모양색종이, 풀, 8절화지, 크레파스
12		주사위 만들기 (상자모양 만들기-숫자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네모모양을 인지하게 하고 전개도에 나타난 네모모양과 수를 인지하도록 한다. * 제시된 6개의 네모색종이를 모양에 맞게 붙인 후 색을 인지하도록 한다. * 1~6가지 수를 인지하고 숫자스티커를 이용해 수를 인지하며 붙이고, 각 수에 맞는 개수를 인지하며 색스티커를 붙이며 수를 인지하도록 한다. * 작업 후 작업과정, 색, 수에 대 	시공간기능 향상, 색 구분 /수 인지 향상	주사위 전개도 종이, 풀, □모양 색종이 숫자 스티커, 색 스티커

			해 인지하고 주사위를 돌려가며 수를 인지하는 응용활동을 하여 본다.		
시공 간 기능 강화 3	13	제시된 반쪽 모양 완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지의 반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고 연상을 해보고 연필을 이용해 그려본다. * 완성 후 그림에 대해 그룹원끼리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며 찾아본다. * 작업 후 치료자가 정답그림을 보여주고 본인의 그림과 같은 점, 다른 점을 찾아 모양을 인지하도록 한다. 	공간기능향상 공간, 방향 구분 및 변별 인지능력 향상	반쪽그림이 그려진 A4종이, 네임펜
	14	대칭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공간에 있는 모양과 위치를 파악해 본 후 반쪽에 제시된 똑같은 공간에 같은 모양과 위치에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 표시해보도록 한다. * 대칭의 개념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거울을 이용해 비추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작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작업 후 치료자의 정답그림을 보고 본인의 그림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간기능 향상 공간, 방향 구분 및 변별 인지능력 향상	A4종이, 네임펜, 싸인펜
	15	화장실/	*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림표지판을	장소, 방향	일상생활과

일상 생활 능력 향상		입원실 표지판 표현하고 기억하기	만들어보고 반복훈련을 통해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인지 인지기능향상	관련된 그림, 우드락, 색지, 8절화지, 크레파스
	16	집 찾기 (미술치료실 , 병실)	* 본인이 사는 방(입원실)을 물어 보고 그 모양을 나누어 준다. * 본인들이 사는 방의 모양을 찾아 본다. * 과일(모양)의 색깔과 숫자를 물어 본다. * 그 집을 꾸며본다. * 작업 완성 후 모양을 인지하게 한 후 반복 훈련을 통해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장소, 방향 인지 인지기능향상	입원실에 부착된 모양판, 8절 화지, 크레파스

인지기능향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2-농촌형, 도시형(고학력자)은 인지기능향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1을 응용하여 환자가 살아온 배경에 따라 재료에 대한 선호도, 교육수준, 생활수준이 다르므로 그것을 치료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농촌형, 도시형(고학력자)의 2단계로 나누어서 각각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계획한 인지기능향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2- 농촌형은 <표3>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기대효과는 과거 농촌에서 사

셨던 노인환자의 대부분이 자연재료와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 치매환자에게 자연재료와 익숙한 주제와 방법을 통해, 치료에 빨리 익숙해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치료효과에 기대를 높일 수 있다. 차별화된 치료 목적은 익숙한 자연재료와 치료방법을 통해 치료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치료경험을 통해 인지기능의 향상을 유도한다.

표 3. 인지기능 향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2- 농촌형

단계	회기	주제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재료
동기 유발 1	1	과일 포도 만들기 1.포도-숫자 2.포도-요일 3.포도-점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모양이 포도모양임을 인식하게 한다. * 제시된 포도모양의 포도 알 수를 인식한 후 모양에 맞게 색 스티커를 붙여나간다. * 포도모양에 제시된 수, 요일을 매칭하여 작업 후 색을 구분하고 색 스티커를 붙여나간다. * 작업 후 수, 요일, 색 인지, 포도 계절 인지하도록 한다. * 제시된 포도모양을 인식하게 하고 포도 알의 수에 맞게 만들어 올려놓고 수 인지하도록 한다. * 포도를 보면서 과일이 나는 계절에 대해 인지하고, 과거의 추 	<p>익숙한 재료를 이용한 흥미 유발. 주의집중력 향상</p>	<p>포도그림이 그려진 종이, 색 스티커, 숫자스티커, 지점토</p>

			억을 회상하며 포도밭이나 포도 따먹기, 포도주 등에 대한 것을 기억하게 한다.		
동기 유발 2	2	먹물과 물감을 이용한 염색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한지를 치료자의 설명에 맞게 한 단계씩 종이접기를 한 후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여 본다. * 제시된 수만큼 색을 선택하고, 제시하는 색을 구분하여 색을 선택한다. * 점차 물감의 색을 늘려가고 색의 이름과 사용한 색의 개수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한지에 제시된 위치에 제시된 수만큼 물감을 찍어서 표현하여 본다. * 표현 후 작업과정에 대해 기억해보고 사용한 색, 수 인지한 후 연상되는 모양을 토의한다. 	치료에 흥미 유발. 집중력 향상 (우연의 효과를 통한 만족감과 미술표현에 거부감을 감소시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먹물, 수채화물감, 한지, 일회용그릇
지남 력 강화	3	자연물을 이용한 달력 만들기1 (계절/ 날씨 표현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적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공간을 붙이고 꾸며보며 계절에서 떠오르는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현재 몇 월이고 무슨 계절인지 인지하게 한다. * 그 계절에 특징적인 사물에 대 	지남력 향상 (계절, 날씨, 시간인지)	다양한 오브제 재료, (나뭇잎, 곡물, 과일모형, 나뭇가지 등) 목공용본드, 양면테이프,

			<p>해 생각해보고 표현해본다.</p> <p>* 달력의 그림으로 사용 하여 기억하며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p>		<p>우드락, 색지</p>
	4	<p>자연물을 이용한 달력 만들기2 (요일, 날짜)</p>	<p>* 제시된 공간에 요일과 숫자를 순서대로 인지하며 붙여나가게 한다.</p> <p>* 전 시간 달력그림을 붙이고, 완성한 달력의 맨 위쪽에 몇 월 인지 표시한다.</p> <p>* 작업 후 월, 요일, 날짜 확인하고 치료자와 만나는 요일과 오늘의 요일에 표시하고 인지하도록 한다.</p>	<p>지남력 향상 (월, 날짜, 계절 인지)</p>	<p>요일 인쇄물, 숫자(1~31)인쇄물, 풀, 8절 색지</p>
	5	<p>자연물을 이용한 시계 만들기</p>	<p>* 제시된 자연물을 인식하고 붙인 후 모양, 색 인지 한다.</p> <p>* 12,6의 숫자를 고정시킨 후 1부터 숫자를 순서대로 인식하며 붙인다.</p> <p>* 아침, 점심, 저녁시간을 말하게 하여 시침, 분침을 맞추어 보도록 한다.</p> <p>* 미술치료 시간을 기억하게 하고 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p>	<p>지남력 향상 (시간)</p>	<p>1~12숫자 인쇄물, 8절화지 핸디코트, 자연물재료 (곡물, 마카로니, 나뭇가지)</p>
시공간 기능	6	<p>한지를 이용한 색 구성작업</p>	<p>* 제시된 색 한지를 손으로 찢어서 같은 색을 인식하고 구분하여 본다.</p>	<p>작업이해력 향상 색 구분/</p>	<p>한지, 풀 8절화지</p>

강화 1- 색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색에 순서를 정하고 순서대로 색을 인지하며 붙여 보게 한다. * 작업 후 사용한 색, 그림에 나타난 색의 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작업과정에 대해 순서대로 기억하게 한다. 	<p>변별력 향상</p> <p>작업기억력 향상</p>	
	7	창호지와 한지를 이용한 창호문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색을 인식하고 순서대로 색을 구분한다. * 제시된 창호문 모양을 보고 순서에 맞게 제작하여 본다. * 각 공간에 수를 순서대로 붙여 본다. * 작업 후 작업과정에 대해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p>시공간기능 향상</p> <p>색구분능력 향상</p> <p>작업이해력 향상</p> <p>작업기억력 향상</p>	창호지, 한지, 풀
	8	색 지사를 이용한 마라카스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2~4가지 색을 인식하고 스스로 사용할 2가지 색을 고르고 구분한다. * 2가지 색 지사를 종이컵에 순서대로 붙여가며 구성하여 본다. * 제시된 곡물 2가지를 구분하고 인지한 후 흔들며 소리를 낸 후 적당량 넣어본다. * 작업 후 사용한 색과 수, 과정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 	<p>시공간기능 향상</p> <p>주의집중력 향상</p> <p>색구분능력 향상,</p> <p>작업순서 인지</p>	지사, 종이컵, 양면테이프, 곡물
9	곡물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곡물의 크기와 색, 모양 	시공간기능	곡물,	

시공 간 기능 강화 2- 공간 능력, 수		이용한 만다라 작업	<p>을 구분하고 인식한다.</p> <p>* 제시된 원 모양에 곡물을 이용하여 서로 겹치지 않게 공간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본다.</p> <p>* 작업 후 같은 모양과 색을 찾아본다. 각각의 똑같은 모양의 개수도 세어본다. 그 뒤 수를 세면서 작업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p>	<p>항상 주의집중력 항상 공간, 모양구분능력 항상 작업순서 인지</p>	<p>원 모양 종이, 지점토, 하드막대</p>
	10	곡물을 이용한 얼굴 표현작업	<p>* 제시된 곡물의 크기와 색, 모양을 구분하고 인식한다.</p> <p>*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표현해 보거나, 사진을 보고 가족의 얼굴을 간단하게 그려본다.</p> <p>* 그려진 선을 따라 적절한 곡물을 골라 적절하게 구성하여 본다.</p> <p>* 자신이 표현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설명해보며, 비슷하게 표정을 지어본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곡물의 크기 결정)</p>	<p>시공간기능 항상 신체인식 강화 공간, 모양구분능력 항상</p>	<p>우드락, 8절화지, 드로잉재료 (크레파스, 싸인펜, 연필, 색연필), 목공용본드, 곡물</p>
	11	공간을 이용한 꽃 화병 작업	<p>* 제시된 화지의 공간을 인식하고 제시된 자연물의 색, 모양을 구분하고 인식한다.</p> <p>* 제시된 화병 모양에 점토를 이용하여 공간을 적절하게 구성</p>	<p>시공간기능 항상 공간, 모양구분능력 항상</p>	<p>8절 색지, 지점토, 데코레이션 꽃, 스팽글</p>

			<p>하여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자연물을 이용하여 화병에 구성해본다. * 작업 후 같은 모양과 색을 찾아본다. 그 뒤 수를 세면서 작업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 		
	12	<p>익숙한 생활용품을 이용한 공간 구성작업 (ex: 나무주걱, 부채, 등 모양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생활용품의 용도에 대해 인식하는지 확인 후 이야기해 본다. * 제시된 공간을 인식하고 제시된 염료의 색을 인지하도록 한다. * 제시된 공간 모양에 여러 가지 모양들 중 어울리는 모양들을 직접 고르게 하고, 단계별로 색을 찍어 구성해 보도록 한다. * 작업 후 단계별 순서를 인지하고, 색을 찾아본다. 완성된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 확인해본다. 	<p>시공간기능 향상 공간, 모양구분능력 향상</p>	<p>생활용품, (나무주걱, 부채) 물감, 스펀지, 일회용접시, OHP필름</p>
시공간 기능 강화 3	13	<p>고향풍경 모습 그리기(평면) (떡물을 이용한 고향풍경 꾸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에 떡물을 이용하는 간단한 선 연습을 해 본다. * 고향풍경에 관한 시골풍경 등의 다양한 사진을 준비 후, 환자와 함께 고향모습에 대해 기억해보도록 한다. 실제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을 유도한다. 	<p>시공간기능 향상 색, 공간, 모양구분능력 향상 장기기억력 향상</p>	<p>한지, 떡물 붓, 시골풍경사진 한지, 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물을 이용해, 고향모습에서 나온(집, 나무, 꽃)등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표현 후 한지를 찢어서 모양과 어울리도록 공간을 꾸며본다. * 제시된 순서로 작업 후 완성된 모양에 대해 인지하고 연상되는 것, 회상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꾸며본다. * 작업 후 가장 먼저그린 순서, 고향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 		
14	<p style="text-align: center;">고향집 (초가집) 정원 만들기(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도형과 색, 크기를 구분하고 인식하도록 한다. * 치료자가 제시하는 모델링 순서를 보며 같은 도형을 찾아 화지에 적절하게 순서대로 입체로 구성하여 본다. * 제시된 순서로 작업 후 완성된 모양에 대해 인지하고 연상되는 것, 회상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꾸며본다. * 작업 후 모양, 색, 방향, 위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시공간기능 향상 색, 공간, 모양구분능력 향상 장기기억력 향상</p>	<p style="text-align: center;">하드보드지, 우드락, 색종이, 양면테이프, 우드락본드 도형 색종이</p>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재료의 모양과 색, 크기를 구분하고 인식하도록 한다. * 치료자가 제시하는 모델링 순 	<p style="text-align: center;">시공간기능 향상 색, 공간,</p>	<p style="text-align: center;">나뭇가지, 종이컵(박스) ,</p>

		<p>자연을물을 이용한 입체나무 만들기</p>	<p>서를 보며 같은 자연물 재료를 찾아 종이컵(박스)에 적절하게 순서대로 입체로 구성하여 본다.</p> <p>* 제시된 순서로 작업 후 완성된 모양에 대해 인지하고 연상되는 것, 회상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꾸며본다.</p> <p>* 작업 후 모양, 색, 방향, 위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p> <p>(계절과 관련된 재료를 준비하여 연관되어 작업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p>	<p>모양구분능력 향상 장기기억력 향상</p>	<p>자연물재료</p>
16		<p>색 한지와 자연물을 이용한 입체상자 만들기</p>	<p>* 제시된 재료의 모양과 색, 크기를 구분하고 인식하도록 한다.</p> <p>* 치료자가 제시하는 모델링 순서를 보며 종이접기 순서로 상자를 만들어나간다.</p> <p>* 같은 자연물 재료를 찾아 종이컵(박스)에 적절하게 순서대로 입체로 구성하여 본다.</p> <p>* 제시된 순서로 작업 후 완성된 모양에 대해 인지하고 연상되는 것, 회상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꾸며본다.</p> <p>* 작업 후 모양, 색, 방향, 위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p>	<p>시공간기능 향상 색, 공간, 모양 구분능력 향상 장기기억력 향상</p>	<p>한지, 자연물, 종이컵(박스) , 풀, 본드</p>

			(환자상태에 따라 종이접기 난이도에 차이)		
--	--	--	-------------------------	--	--

본 연구를 위해 계획한 인지기능향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2- 도시형(고학력자)은 <표4>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기대효과는 과거 도시에서 높은 학력과 직장에서 근무했던 치매환자에게는 높은 사고를 유도하고 다양하게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방법을 제시하여, 치료에 빨리 익숙해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치료효과에 기대를 높일 수 있다. 차별화된 치료 목적은 높은 사고를 유도하고 다양한 재료와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통해 치료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치료경험을 통해 인지기능의 향상을 유도한다.

표 4. 인지기능 향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2- 도시형(고학력자)

단계	회기	주제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재료
동기 유발 1	1	데칼코마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화지를 반쪽으로 종이접기를 한 후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여 본다. * 제시된 수만큼 색을 선택하고, 제시하는 색을 구분하여 색을 선택한다. * 점차 물감의 색을 늘려가고 색의 이름과 사용한 색의 개수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작업에 흥미 유발 집중력 향상 (우연의 효과를 통한 만족감과 미술표현에 거부감을 감소시켜	수채화물감, 8절화지, 8절색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지에 제시된 위치에 제시된 수만큼 물감을 찍어서 표현하여 본다. * 표현 후 작업과정에 대해 기억해보고 사용한 색, 수 인지한 후 연상되는 모양을 토의한다. 	<p>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p> <p>치료자와의 라포 형성</p>	
동기 유발 2	2	먹물난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화선지에 직선, 곡선, 자유선 등 자유롭게 선을 그어보며 먹물의 사용방법을 익힌다. * 제시된 화선지에 다양한 표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붓 이외에 스펀지, 붓, 신문지 등을 이용하여 그리기 도구를 제시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 본다. * 표현 후 공간을 찾아 한지를 찢어 붙이거나, 드로잉재료를 이용하여 색을 칠하여 공간을 인식하여 본다. * 작업 후 그림에서 보여지는 공간을 찾아 수를 세어보고 모양을 연상해 본다. * 작업과정에 대해 순서대로 기억해보며 오늘 작업에 과정에 대해 환자가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확인한다. * 서로의 작품을 비교하며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고 서로 얘 	<p>작업에 흥미 유발.</p> <p>주의집중력 향상</p>	<p>먹물, 화선지, 붓, 스펀지, 신문지, 한지, 풀, 드로잉재료 (색연필, 싸인펜, 크레파스)</p>

			기해본다.		
지 남 력 강 화	3	달력 만들기1 (계절/ 날씨 표현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적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공간을 붙이고 꾸며보며 계절에서 떠오르는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현재 몇 월이고 무슨 계절인지 인지하게 한다. * 그 계절에 특징적인 사물에 대해 생각해보고 표현해본다. * 달력의 그림으로 사용 하여 기억하며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남력 향상 (계절, 날씨, 시간인지)	다양한 오브제 재료, 풀, 양면테이프, 드로잉재료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4	달력 만들기2 (요일, 날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공간에 요일과 숫자를 순서대로 인지하며 붙여나가게 한다. * 전 시간 달력그림을 붙이고, 완성한 달력의 맨 위쪽에 몇 월인지 표시한다. * 작업 후 월, 요일, 날짜 확인 하고 치료자와 만나는 요일과 오늘의 요일에 표시하고 인지하도록 한다. 	지남력 향상 (숫자, 날짜 개념, 시간인지)	요일 인쇄물, 숫자(1~31) 인쇄물, 풀, 8절색지
	5	시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모양을 인식하고 붙인 후 모양, 색 인지 한다. * 12, 6, 3 ,9의 숫자를 고정시킨 후 1부터 숫자를 순서대로 인식하며 붙인다. * 아침, 점심, 저녁시간을 말하게 	지남력 향상 (시간)	1~12숫자 인쇄물, 8절화지, △한지, 풀, 시계바늘

			<p>하여 시침, 분침을 맞추어 보도록 한다.</p> <p>* 미술치료 시간을 기억하게 하고 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p>		<p>종이, 크레파스</p>
시공간 기능 강화 1	6	자기 얼굴 표현하기 (드로잉/ 소조)	<p>* 자신의 얼굴을 점토나 그림으로 그려 본다고 설명한 후 거울을 보며, 자기의 눈, 코, 입, 귀, 눈썹, 머리카락 등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켜 본다.</p> <p>* 16절지에 드로잉재료를 통해 자기의 얼굴모습을 개략적으로 그리게 한다. (환자상황에 따라 치료자가 미리 얼굴모양의 밑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다)</p> <p>* 밑그림 위에 점토를 붙이는데, 먼저 얼굴윤곽을 표현하고 머리카락, 눈, 코, 입 등의 신체부위를 붙여나간다.</p> <p>* 표현력이 좋거나 숙달되면 부조에서 환조(입체)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p> <p>* 작품과 환자의 얼굴을 비교하며 잘 표현된 부분과 작업 순서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p>	<p>시공간기능 향상 작업이해력 향상 작업기억력 향상 신체인식강화</p>	<p>거울, 지점토, 드로잉재료 (싸인펜, 색연필, 연필) 지우개, 16절지종이</p>
	7	가족/친구사 진 매칭작업	<p>* 제시된 가족과 친구사진을 준비한다.</p> <p>* <가족>,<친척>,<친구>등에 그룹</p>	<p>주의집중력 향상 작업이해력</p>	<p>가족/친구 사진, 4절화지,</p>

		<p>에 각각의 사진들을 매칭하여 본다.</p> <p>* 매칭 후, 각자 누구인지 확인하고 기억나는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p> <p>* 작업 후 작업과정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p>	<p>항상</p> <p>작업기억력</p> <p>항상</p> <p>계열성,순서성</p> <p>항상</p>	<p>풀,</p> <p>드로잉재료</p>
8	<p>소조작업 (가족 얼굴 만들기) -장, 단점 나누기</p>	<p>* 준비된 가족사진을 보며 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p> <p>* 16절지에 드로잉재료를 통해 가족의 얼굴모습을 개략적으로 그리게 한다. (환자상황에 따라 치료자가 미리 얼굴모양의 밑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다.)</p> <p>* 밑 그림 위에 점토를 붙이는데, 먼저 얼굴윤곽을 표현하고 머리 카락, 눈, 코, 입등의 신체부위를 붙여나간다. (이때 가족 얼굴 부위에 기억나는 특징들을 기억해보게 하며 작업해나간다.)</p> <p>* 표현력이 좋거나 숙달되면 부조에서 환조(입체)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p> <p>* 가족 구성원들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한다.</p> <p>* 작업 후 <**의 가족>으로 뜻말을</p>	<p>시공간기능</p> <p>항상</p> <p>작업이해력</p> <p>항상</p> <p>모양,</p> <p>공간구분능력</p> <p>항상</p> <p>신체인식강화</p>	<p>가족/친구</p> <p>사진,</p> <p>지점토,</p> <p>드로잉재료</p> <p>(싸인펜,</p> <p>색연필,</p> <p>연필)</p> <p>지우개,</p> <p>16절지종이</p>

			붙여 준다.		
시공 간 기능 강화 2	9	플라쥬 작업1 - 결혼/출생/ 졸업/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 꾸미기	* 자신과 관련된 결혼, 출생, 졸업, 집을 옮기는 이사 등 특별한 사건에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준비한다. * 8절 도화지에 주제에 맞게 표현해보고 이야기해 본다. * 작업 후 작업과정과 순서에 대해 기억해보고, 특별한 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어본다.	시공간기능 향상 구분력 증진 공간구성 향상	그림, 사진, 8절화지, 풀, 드로잉재료
	10	플라쥬 작업2 -인물	* 시대에 유명했던 사람들을 골라. 8절 도화지에 붙여보고, 표현을 해보고, 떠오르는 기억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본다. * 붙여진 인물에 대해 누구인지, 이야기 해본다. * 작업 후 작업과정을 기억해보도록 한다. * 어떤 인물들이 선택되어졌는지 확인해본다.	시공간기능 향상 구분력 증진 공간구성 향상	사진, 8절화지, 풀, 드로잉재료
	11	플라쥬 작업3 - (받고싶은 선물, 기뻐던 일, 슬펐던 일)	* 사진이 많은 잡지책이나 다양한 모습의 사진들을 준비한다. * 8절지에 치료자가 제시하는 것과 어울리는 것을 스스로 골라붙여 나간다. * 구성 후,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하	시공간기능 향상 구분력 증진 공간구성 향상	사진, 그림, 잡지책, 8절화지, 풀, 드로잉재료

			고, 대화를 유도하며, 작업 순서에 대해 기억해보고 그룹원끼리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한다.		
	12	풍경 구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지에 테두리를 그린 후 제시한다. * 풍경을 그려볼 것이라 이야기 한 후, 기억나는 풍경이 있는지, 어릴 적 살았던 고향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 치료자의 설명에 맞게 불러주는 순서대로 강, 산, 밭, 길 등을 그려나가게 한다. * 표현 후, 어울리는 색을 칠하면서 기억나는 풍경을 완성해보도록 한다. * 가장 먼저 그린 순서부터 기억해보고, 작업과정을 기억해본다. 	장소, 방향 인지기능 향상 시공간기능 향상 공간구성 향상	8절화지, 드로잉재료
시공 간 기능 강화 3	13	스토리 책 제작 (스토리 메이킹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에게 스토리를 들려주고 인상깊은 곳을 표현해보도록 한다. * 스스로 표현이 안 될 경우, 손을 잡아 같이 그림을 그려 도와주고, 그림을 그리면 격려해 준다. *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드로잉 재료를 사용해본다. * 그림을 다 그리면 그림 속에 나오는 대상에 대하여 하나씩 질문 	시공간기능 향상 작업이해력 향상 주의집중력 향상 작업기억력향 상	8절색지, 드로잉재료, 풀, 지사, 색종이

		<p>을 해 본다.</p> <p>* 그림속의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하고 있는지,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대화해 나간다.</p> <p>(치료 후 그림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이 과정은 녹취를 하여 환자와 치료자의 대화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다.)</p>		
14	그림 대화하기	<p>* 그룹원끼리, 혹은 치료자와 짝을 지어 8절 화지를 준비한다.</p> <p>* 어떤 주제를 정한 후, 그림을 만들어보라고 제안하고, 한 가지 색이나 여러 가지색을 사용하여 한 사람이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리는 식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림이나 풀라쥬를 완성해 가도록 한다.</p> <p>* 그림의 거의 완성되면 그림을 벽에 게시하고 설명을 듣는다.</p> <p>* 작업 후 작업순서와 본인이 표현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본다.</p> <p>* 만들어진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본다.</p>	<p>인지기능 향상</p> <p>작업이해력 향상</p> <p>주의집중력 향상</p> <p>작업기억력 향상</p>	<p>8절색지, 드로잉재료,</p>
15	자발적인 그림(작품)	<p>* 화지에 테두리를 그려주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거나</p>	<p>인지기능 향상</p> <p>작업이해력</p>	<p>8절색지, 드로잉재료,</p>

		<p>밑그림을 색칠하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 여러 사람이 그린 각각의 그림을 모아 이야기를 만들어본다. * 그림의 공통점, 차이점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야기 해 본다. * 그림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방법도 시도해보고 힌트를 주거나 가끔 이야기가 끊기지 않도록 도와준다. 	<p>항상 작업기억력 항상</p>	
16	<p>소원나무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된 재료를 보고 소원나무를 만들 것임을 소개한다. * 제시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그룹원 들끼리 의견을 나눈 후 하나의 나무를 만들어본다. * 제시된 여러 모양과 색의 종이를 나누어 준다. * 그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 후 종이를 여러 번 접어서 적당한 크기로 접는다.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고를 반복) * 종이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른다. *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을 적어본다. * 스티커나 기타 재료를 이용해 예 	<p>시공간기능 항상 작업이해력 항상 주의집중력 항상 작업기억력 항상</p>	<p>다양한 오브제 재료, 나뭇가지, 색볼, 색 스팽글, 본드</p>

			빠르게 꾸며본다. * 표현 후 직접 원하는 위치에 나무에 걸어본다.		
--	--	--	--	--	--

2. 회상유도를 적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회상 미술치료를 통하여 치매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저하와 자립능력의 상실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 외로움, 고립감 등 복합적인 증상을 완화하고 치매노인의 잔존기억을 유지 시키는데 있다. 또한 미술작업을 통하여 개인의 흥미유발과 자발성 향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의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취하게 하며,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회상미술치료 프로그램은 Bulter가 언급한 생애회고이론에 의거하여 아동기, 초기 성인기, 후기 성인기와 같이 노인의 생애주기를 그림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회상주기를 이끌어내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⁷⁴⁾

그에 따른 구체적인 회상주제는 전시자가 양로원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으로 실시해 분석한 결과에 언급된 10가지 주제 즉, 가정생활, 성장과정, 가족, 고향, 전쟁, 피난, 회환, 전생애회고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⁷⁵⁾

74) 김지희(2002), 「회상요법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p.15

75) 전시자(1989), 「회상의 내용분석 및 간호적용에 관한 연구: 일 양로원 노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26

본 회상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총 16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1회기~3회기까지 초기단계로 오리엔테이션과 미술매체의 탐색과 흥미유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4회기~13회기까지는 실행단계로서 치매노인들의 인생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회상주제를 풀라쥬, 소조활동, 포토 몽타쥬 등의 미술활동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치매노인들이 경험한 과거사진 중 유쾌한 경험이나 아쉬웠던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종결단계 14~16회기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관망하게 하고, 앞에서 작업한 그림과 작품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감상하게 한 후, 느낀 점이나 배운 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종결하였다.

본 연구의 회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진행구성은 <표5>과 같다.

표 5. 회상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주제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재료
초기 단계	1	먹물난화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을 감고 치료자의 지시에 맞게 심호흡을 한다. * 붓을 이용하여 8절 화선지에 어릴적 낙서의 경험을 떠올려보며 자유롭게 선을 그려본다. * 그려진 선을 보고 숨은그림찾기(모양 찾기)를 하고 크레파스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그리거나 색칠해본다. 	재료탐색과 감정표출 라포 형성	먹물, 붓, 화선지, 크레파스

			다. * 그려진 모양을 가지고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2	과거 좋아하는 노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를 눈을 감고 들어본다. * 8절 화지에 노래를 들으며 생각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선으로 표현해본다. * 다양한 선 위에 좋아하는 습자지 색을 선택하여 손으로 찢어서 화지 전체를 붙여서 구성해본다. * 완성된 그림을 보고 표현할 때의 기분이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 완성된 그림을 보고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그 시절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본다. 	과거회상과 심리적 안정	우리나라 민요, 가요 테이프, 8절 화지, 크레파스, 색 습자지	
3	나의 몸 탐색 (나의 아픈 곳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상이 그려진 종이를 보며 각 신체기관의 명칭에 대해 생각해본다. * 내가 현재 가장 아픈 곳(신체적, 정신적)으로 표시해보고 그것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 그림의 몸을 색을 칠하고 꾸며주며 건강해진 몸으로 만들어본다. 	무력감 완화와 친밀감 형성	전신상이 그려진 종이,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스티커	

			* 표현할 때의 느낌과 완성된 작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실 행 단 계	4	나의 가족 소개 (가계도)	* 가계도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여자는 ○, 남자는 □로 표현하게 하여 제시된 모양 색종이를 붙여 표현하도록 한다. * 각각의 도형에 누구인지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의 이름을 기술하게 한다. * 각 가족들의 이름, 나이, 특징, 별명 등을 설명하며 가족을 소개하여본다.	현재 가족이나 자손을 통하여 삶의 가치를 찾고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	8절화지, 풀, ○ /□모양 색종이
	5	어린시절 놀이	* 유년 시절의 긍정적인 기억(놀이, 우정, 우애)를 회상하여본다. * 친구, 형제와 놀던 놀이형태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 공기, 화투 등 놀잇감을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 놀이방법, 어릴 적 좋은 기억이나 추억을 떠올려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자기인식 즐거운 과거 회상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긴장완화 긍정적 과거경험노 출	공기, 화투, 8절화지, 크레파스
	6	나의 고향마을	* 어릴 적 고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 준비된 다양한 모양의 한지종이와 점토 등을 이용하여 고향의	긍정적 지지와 감정표출	8절화지, 점토, 다양한 모양 한지 종이,

		<p>풍경모습을 표현하여본다.</p> <p>* 완성된 모습을 보며 고향모습을 생각해보고 떠오르는 기억과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본다.</p>		<p>풀, 다양한 오브제 재료</p>
7	<p>나의 젊은 시절엔 (포토몽타주)</p>	<p>* 나의모습을 시대별로 각각의 옛날 사진을 보며 이미지를 회상하여 본다.</p> <p>* 옛날사진들을 다시 재조합하여 나의 화려했던 젊은 시절의 모습을 구성하여본다.</p> <p>* 완성된 작품을 보고 젊은 시절의 모습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눈다.</p>	<p>자존감 향상, 과거회상</p>	<p>옛날사진, 도화지, 크레파스</p>
8	<p>결혼생활과 아이 양육 (사진대화기법)</p>	<p>* 준비한 결혼, 아이들을 기를 때 찍은 개인사진들을 주제별로 분류해본다.</p> <p>* 사진을 각 주제별로 8절 화지에 붙여서 구성해본다.</p> <p>* 사진을 보며 각 시기에 떠오르는 기억과 추억, 기뻐던 일, 슬펐던 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p>	<p>과거회상과 의욕향상</p>	<p>개인사진</p>
9	<p>자신의 일</p>	<p>* 나의 인생에 기쁜 기억들을 떠올려 본다.</p> <p>* 행복의 의미와 애환들을 잡지를 활용하여 8절 화지에 붙이면서 표현한다.</p> <p>* 완성된 작품을 보고 기쁜 기억에</p>	<p>감정표출, 자기인식과 성찰</p>	<p>일기장, 크레용, 색종이, 잡지, 풀, 가위</p>

		<p>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본다.</p> <p>* 준비 된 여러 전쟁관련 신문, 사진, 잡지 그림 등을 내가 겪은 실제 전쟁과 관련된 사진을 고른 후 8절 화지에 붙여서 구성해본다.</p> <p>* 실제 겪었던 전쟁 시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부분, 힘들었던 일 등을 이야기해본다.</p> <p>* 그 시절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을 무엇 때문이였는지 생각하고 이야기해본다.</p>	<p>전쟁시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어려움을 겪은 것을 나눔으로써 서로 상호위로와 지지</p>	<p>전쟁관련 신문, 사진, 잡지, 가위, 풀, 8절 화지</p>
10	<p>내가 겪은 전쟁이야기 (플라쥬기법)</p>	<p>* 준비 된 여러 전쟁관련 신문, 사진, 잡지 그림 등을 내가 겪은 실제 전쟁과 관련된 사진을 고른 후 8절 화지에 붙여서 구성해본다.</p> <p>* 실제 겪었던 전쟁 시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부분, 힘들었던 일 등을 이야기해본다.</p> <p>* 그 시절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을 무엇 때문이였는지 생각하고 이야기해본다.</p>	<p>전쟁시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어려움을 겪은 것을 나눔으로써 서로 상호위로와 지지</p>	<p>전쟁관련 신문, 사진, 잡지, 가위, 풀, 8절 화지</p>
11	<p>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플라쥬기법)</p>	<p>* 잡지와 신문, 사진 등을 이용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과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본다.</p> <p>* 8절 화지에 구성해본다.</p> <p>* 그 외에 더 필요한 부분 등을 드로잉재료를 이용해 그림으로 표현해본다.</p> <p>* 완성된 그림을 보고 떠올려지는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본다.</p>	<p>과거의 미 해결된 과제와 자신의 부족한 인생의 부분을 수용기회 제공</p>	<p>잡지, 가위, 사진, 도화지, 싸인펜</p>
12	<p>명절 추억 (소조활동)</p>	<p>* 한 해에 명절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명절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대표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본다.</p> <p>* 명절에 맛있게 먹었던 대표음식</p>	<p>과거 회상과 이완운동, 소근육운동</p>	<p>찰흙, 니스, 물감, 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 찰흙을 이용하여 표현해본다. * 물감을 이용하여 사실감 있게 색을 칠하여본다. * 완성된 작품을 보고 생각나는 기억과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3	계절 추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 각각 계절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관련 계절사진과 그림, 다양한 나뭇잎 등의 재료를 이용해 생각나는 기억이나 추억을 8절화지에 표현하여 본다. * 완성된 그림을 보며 그때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과거 회상과 이완운동	관련계절사진, 그림 나뭇잎, 8절화지, 풀, 가위
중 결 단 계	14	감사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인생을 살며 감사했던 일과 사람, 나를 너무 힘들거나 슬프게 했지만 용서해야하는 일과 사람에 대해 생각해본다. * 제시된 얼굴그림에 그 사람을 떠올리며 표현을 해본다. * 그때의 사건과 일을 떠올리며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 완성된 그림을 보며 그때의 일들과 그 사람에게 직접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해보며 이야기를 나누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 사건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 자아성찰과 통합	다양한 얼굴그림, 색연필, 싸인펜, 8절화지, 크레파스

			어본다.		
15	소중한 내 인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행복했던 순간, 꼭 기억하고 싶었던 순간 등을 선택해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 완성된 작품을 보고 표현한 기억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과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감정과 행동을 통합, 자기인식을 통한 감정표출	8절 화지 드로잉재료 (크레파스, 색연필)	
16	나에게 주는 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을 살아오면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선물을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본다. * 다양한 모양의 상자 중 마음에 드는 상자를 골라서 의미있는 작품을 만든다. * 실제로 나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를 해보면서 내 자신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성취감 향상, 자기인식을 통한 감정표출	다양한 모양의 상자, 오브제 재료, 풀, 가위, 색종이, 스티커	

3. 정서완화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정서완화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술을 치료매체로 하여 노인들의 지나간 시절의 억압된 감정표출을 도와 자기감정이나 느낌 및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지난날들의 긍정적 회상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향상시켜 줌으로서 노인들의 자기존중감을 갖게 하고 남은 인생을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치매로 인해 오는 우울감, 자존감 저하, 의욕상실 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정서완화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초기단계, 실행단계, 종결단계로 구성하였다. 총 16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1회기~5회기까지 초기 단계로 주제와 작업은 친숙한 관계형성을 목표로 활동을 통한 긴장이완과 흥미유발을 유도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6회기~11회기까지는 실행단계로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자발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표현하도록 돕고, 각자의 인생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자기인식과 노출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자기인식과 자기성찰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종결단계 12~16회기에서는 각자 삶의 애환과 갈등을 정리하고, 과거와 현실을 통합하는 작업을 위주로 하였다. 각자의 소중한 인생의 의미와 더불어 긍정적인 삶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소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정서완화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진행구성은 <표6>과 같다.

표 6. 정서완화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주제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재료
	1	이름 꾸미기 (자기소개)	*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종이에 제시된 스펡글과 수수깡 등을 이용하여 붙여서 꾸며본다. * 꾸며진 이름을 보여주며 자기소개	라포형성 및 동기유발	우드락, 이름이 적어진 종이인쇄물,

초 기 단 계			(이름, 고향, 나이, 젊은 시절 직업, 자녀 수) 등에 대해 말한다.		풀, 스펙글, 수수깡
	2	띠별 그림 색칠하기 (나의 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띠 동물 중 나에게 해당되는 띠 동물을 고른다. * 다양한 색을 골라 색을 칠하며 꾸며 본다. * 그 동물에 얽힌 일화와 띠별 성격과 행동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다른 그룹원과 치료자에게도 소개를 하며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라포형성 및 동기유발 흥미유발	띠별 동물그림,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3	손 본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오른손과 왼손을 유심히 관찰한다. *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쪽 손을 고른다. * 석고붕대를 물에 묻혀 손 모양에 맞게 고르게 붙여본다. * 굳은 석고붕대를 떼어낸다. 손 안쪽을 보고 생긴 주름 등 실제 손과 비교해본다. * 물감을 이용해 손을 꾸며본다. * 석고붕대를 하고 있을 때의 느낌, 물감을 이용해 손을 변신시켰을 때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긴장이완 흥미유발	석고붕대, 일회용 그릇, 아크릴물감, 붓, 금/은 가루
	4	자신의 얼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관찰 	긴장이완	거울,

		꾸미기	<p>하여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의 각 명칭에 대해 짚어본다. * 얼굴의 모양만 그려진 다양한 그림 중 본인의 얼굴형과 가까운 그림을 고른다. * 거울을 보며 실제 내 모습과 비슷하게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 완성된 얼굴모양을 보고 실제 얼굴모양과 비교 관찰해보고 표현할 때의 느낌과 완성된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흥미유발	<p>다양한 얼굴모양그림, 드로잉재료 (색연필, 싸인펜, 연필)</p>
	5	한지구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색의 한지의 색을 보며 느낌을 이야기해본다. * 그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색과 마음에 드는 색을 떠올리며 각각의 색을 골라 한지를 구겨본다. * 구긴 한지를 다시 펼쳐본다. * 한지를 구겼을 때의 느낌과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p>긴장이완 흥미유발</p>	색 한지
실 행 단 계	6	꼭물만다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점토를 반죽하여 접시에 담는다. * 하드막대와 종이컵을 이용하여 지점토의 공간을 나눈다. * 나누어진 공간을 다양한 꼭물, 마카로니, 스펅글, 조화를 이용하여 구성해본다. 	<p>정서적 안정 우울감소</p>	<p>지점토, 일회용접시, 꼭물(콩,팥, 마카로니), 스팽글, 종이컵, 하드막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작품을 보고 만들면서 생각나는 것, 느낌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조화
7	한지를 이용한 염색으로 조각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지재료와 염색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 한지를 구긴 후 치료자의 지시대로 접는다. * 제시된 물감의 색과 수를 확인하고 한지를 그릇에 담가 염색을 한다. * 염색방법과 종이접기 방법을 기억하고 반복하여 염색을 한다. * 염색된 종이 4장을 합쳐 조각보로 구성되도록 네모모양으로 연결하여 붙여본다. * 완성된 작품을 보고 생각나는 기억과 느낌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정서적 안정 우울감소	한지, 물감, 붓, 일회용그릇, 풀, 전지
8	한복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그림을 보며 남자와 여자 한복을 구분하고, 한복의 명칭에 대해 말한다. * 한복모양의 그림과 똑같은 모양의 한지를 매칭하여 붙여본다. * 크레파스와 전통무늬를 어울리게 붙이고 꾸며본다. * 한복의 세부표현(버선, 고무신, 고름, 동정)도 미리 준비된 재료를 	정서적 안정 우울감소	한복그림 (여자, 남자), 한지, 크레파스, 전통무늬, 풀

		<p>붙여서 구성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작품을 보고 한복을 언제 입는지, 한복에 대한 기억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9	나만의 보석함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된 다양한 함 모양의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 보석함의 모양, 한지의 모양과 색수를 확인해본다. * 보석함의 모양에 맞게 한지를 붙인다. * 칠을 하여 견고하게 만든다. * 완성된 작품을 보고 보석함에 무엇을 담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눈다. 	정서적 안정 우울감소 성취감 향상	보석함, 한지, 밀가루 풀, 붓,
10	하회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된 여러 탈 모양의 사진을 보고 각각의 탈의 이름과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하회탈과 얼굴의 명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하회탈을 자유롭게 색칠하고, 이마의 주름살을 그린다. * 얼굴 양 옆에 구멍을 뚫고 털실을 묶어 완성한다. * 완성된 하회탈을 직접 써보고, 만들면서 생각나는 기억과 느낌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정서적 안정 우울감소	하회탈모양이 인쇄된 종이, 크레파스, 털실
11	생활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했던 생활용 	정서적 안정	주걱,

		<p>이용한 주격에 스텐실작업</p>	<p>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주격을 보여주고, 주격의 생김새와 쓰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여러 도안 중 마음에 드는 도안을 선택하여 물감을 이용해 스텐실 작업을 한다. * 완성된 작품을 보고 생활용품이 미술작품으로 재탄생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p>우울감소</p>	<p>아크릴물감, 스펀지, ohp필름</p>
<p>총 결 단 계</p>	<p>12</p>	<p>나의 사진액자 꾸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여러 사진 중 가장 간직하고 싶은 사진을 고른다. * 액자 틀에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사진과 어울리게 꾸며본다. * 마분지에 사진과 액자틀을 붙여 완성한다. * 완성된 사진액자를 보며 그 시절의 추억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p>정서적 안정 우울감소 성취감 향상</p>	<p>개인사진, 우드락, 마분지, 풀, 양면테이프, 다양한 오브제 재료</p>
	<p>13</p>	<p>인생 앨범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적, 청년기, 결혼 등 인생에서 특징적인 개인사진들을 시대별로 분류해본다. * 각각의 시대별 제목을 적고, 사진을 붙이고, 그 시절의 특징에 대해 적어본다. * 앨범의 표지도 나를 잘 나타낼 수 	<p>정서적 안정 우울감소 성취감 향상</p>	<p>시대별 개인사진, 풀, 가위, 색지, 8절화지, 드로잉재료 (색연필,</p>

		있도록 꾸며본다. * 사진을 한 장한장보며 그때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인생을 정리해본다.		싸인펜) 모양 스티커
14	나의 작품집 만들기	* 종결작업을 준비한다고 알리고, 지난 회기 중 어떤 활동이 생각나는지 기억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 작품 사진을 보며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른다. * 작품집에 작품사진과 제목, 날짜를 순서대로 붙이고 꾸며본다. * 완성된 작품집을 보며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정서적 안정 우울감소 성취감 향상	색지, 지난 회기작품 사진과 제목, 날짜종이, 풀
15	나에게 주는 상장만들기 및 수여식	* 그동안 인생을 살며 내가 잘한 일, 자랑스러웠던 일을 기억해본다. * 상장종이에 나를 칭찬해주고 싶은 글을 적어본다. * 실제 상장수여식을 진행하여 인생을 살며 잘한 일에 대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본다. * 수여식 후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정서적 안정 자아존중감 향상 성취감 향상	상장종이, 상장금박마크, 풀, 색연필, 싸인펜
16	나의 작품 전시회	* 치료의 마지막 시간임을 알리고, 그동안 내가 했던 작품들을 전시	정서적 안정 자아존중감	그동안 만든 작품

		<p>해보는 시간을 갖는다.</p> <p>* 지난 활동 중 어떤 활동이 생각나는지 기억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p> <p>*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선물한다.</p>	<p>향상 성취감 향상</p>	
--	--	---	----------------------	--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와 함께 증가추세에 있는 치매노인으로 가족은 물론 사회로까지 파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고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봄으로써 전문치료의 한 방법으로 넓게 활용되고 보급되기를 의도 하였다. 또한 치매노인 문제의 치료적 접근의 출발로서 우리나라의 치매노인 미술치료에 대한 인식과 전문지식이 미흡한 실정을 알리고 치매노인에게 미술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향상, 회상, 정서완화를 목적으로 한 3가지 구체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 및 그 활용방안을 제안, 예시하였다.

지금까지 치매노인 미술치료에 관한 선행연구는 양적으로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고 대개는 단순한 치매노인 미술치료 실태분석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질적으로도 이제 막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이다. 이제 치매노인 미술치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론적 연구와 함께 그에 기초한 실질적이고도 체계화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깊이 있는 실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미술치료사뿐만이 아니라 치매노인을 담당하는 시설, 치매노인, 가족 등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

치매는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치고 지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거의가 방치되거나 물리적인 치료법만을 고집하여 온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7년 동안 치매노인에게 미술치료를 실시한 경험을 돌이켜 경제적이며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미술치료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치매환자의 특징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도 나타나고 인지적 능력의 손상이 가장 크다. 이제까지 치매노인이나 가족은 신체적 기능장애의 회복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정서적 장애와 인지능력장애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정서의 안정이나 환기로 불안감이 사라지고 인지능력의 저하를 감소시킨다면 이를 통해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초기단계의 경증치매노인처럼 재가서비스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미술치료는 긍정적인 삶을 받아들이게 하고 피해의식을 줄일 수 있어 가족과의 신뢰 회복이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한다. 그러한 결과는 재가서비스를 하는 간병인이나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우리는 흔히 치매를 가족 병이며 사회 병이라고까지 일컫는다. 그렇듯 치매노인은 사회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책임져야 할 크나큰 과제이다. 미술치료는 치매노인을 안정되게 사회에 융합시키는 방법이며, 아직까지 치료책이 없는 치매의 예방과 진행 상태에 호전을 주는 치료방법이라고 본다.

미술치료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며 평등하게 치료 될 수 있는 대체치료 중 하나이며 약물과 함께 병행하면서 치매노인의 우울감, 불안감과 인지기능향상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국내 여러 논문에서 입증되었다.

아직까지 미술치료가 많이 보편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각 의료기관 그 중에서도 치매노인을 담당하는 요양병원 등 기관까지 보급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노인복지시설이나 병원의 프로그램들은 시설의 사회복지사와 각종

분야의 자원봉사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미술치료분야는 전문 미술치료사가 진행하여야만 하는 분야이고 치료 목표를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전문미술치료사가 많이 배출이 시급하다.

고령화 시대를 염려하며 준비하는 많은 문제점의 해결책 가운데 미술치료도 함께 도입되어 더욱 증가하는 치매노인들의 남은 삶이 황폐하지 않고 안정되게 질 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치매노인에게 제시한 프로그램들이 각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치매의 증상과 주호소문제 등이 각각 다르므로 환자의 진단명, 인지 기능 수준, 실행능력, 성별 등을 좀 더 세분화하여 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예방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므로 양로원, 주간보호센터, 치매센터 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해보고 실제 인지기능과 우울 등 감정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의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연구지도에 도움을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권기덕 · 김동연 · 최외선, 『가족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1993
- 김동연 · 최외선, 『성인미술치료』, 동아문화사, 1993
- 김선현 · 전세일, 『임상미술의 이해』, 이론과 실천, 2006
-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1993
- 신현옥, 『치매예방 그리고 미술치료』, 월간미술세계, 2005
- 오병훈, 『치매-치매 이해와 치료의 바른 길잡이-』, 무지개사, 2009
- 정여주, 『노인 미술치료』, 학지사, 2006
- 정현희 · 이은지, 『실제적용중심의 노인미술치료』, 학지사, 2007
- 최외선 · 이근매 · 김갑숙 · 최선남 · 이미옥,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학지사, 2006
-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1994

[논문]

- 권일현 · 최법진, 「색채 심리 노인 생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형예술연구논문집 제 6집, 2005
- 김동연 · 신현옥, 「치매노인의 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제6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1997

- 김민정,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시공간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천의과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 김정숙, 「집단미술치료가 요양시설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2008
- 김지희, 「회상요법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 2002
- 김영미, 「치매노인에 대한 미술치료의 효과성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1
- 김영숙, 「치매노인 재활을 위한 주간보호(Day Care)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 김영희, 「집단미술치료가 치매위험군 노인의 기억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 김형희, 「색채경험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2009
- 단정와, 「치매노인 인지기능과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6
- 류정자,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학습된 무기력 및 우울 정서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0
- 박선민,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성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5
- 박소영, 「여성적 소재를 통한 유미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본인의 판화 작

품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 변용찬, 「치매노인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0월호, 1997
- 윤영옥,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1
- 윤종호,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0
- 이금선, 「치매노인 음악치료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 성산효도대학원, 2004
- 이정희, 「치매환자 간호-진단과 치료적 접근」,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교재, 1997
- 전시자, 「회상의 내용분석 및 간호적용에 관한 연구: 일 양로원 노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9
- 정혜란,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의사소통 및 정서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6
- 최상균, 「영상을 통한 회상자극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뇌혈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2002
- 황선영, 「노년기 치료적 미술 활동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홍정현, 「노인의 학습무기력 및 개념화 양식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0

[해외저널]

- Gallagher.s.m(1993), Celebration of Women's Lives: Geriatric Art Therapy Life Review. Masters Thesis(M.A)-Ursuline Collage.108.Masters Abstracts International.31(04)
- Kathleen B. Kahn-Denis(1997),Art Therapy with Geriatric Dementia Clients, Art Therapy: *Journal of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 Kramer.M.E, Rosellini & Robert A.(1984).The effect of learned helplessness training on subsequent task performance in children.:*Journal of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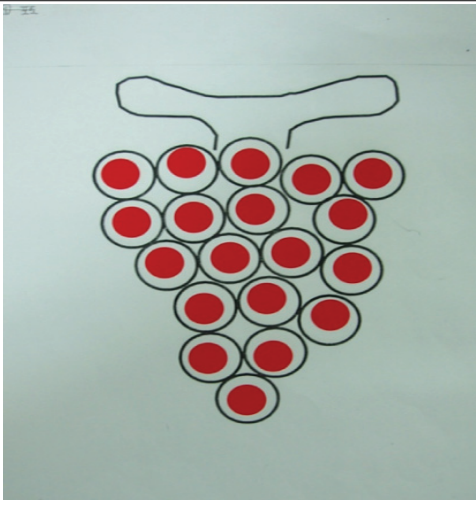
myhome.netsgo.com/drdonsoo/list.html.

[기사]

- 경향신문, 2004.1.15, 2004.3.29
- 노년시대신문, 2010.1.16
- 부산일보, 2005. 8. 22
- 포커스신문사, 2010.1.16
- 한겨레신문, 2003.10.14
- mbn뉴스, 2009.2.24

<부록>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작품사진>




단계	회기	주제	작품
동기 유발 1	1	데칼코마니	
동기 유발 2	2	과일포도만들기	

			
지남 력 강화	3	달력만들기1(계절)	
	4	달력만들기2 (요일,날짜)	

	5	시계 만들기	
시공 간 기능 강화 1	6	색 습자지를 이용한 색 작업	
	7	사포에 색 순서작업 (손 그리기)	
	8	색종이 모자이크	

시공 간 기능 강화 2	9	도형구성작업1	
	10	도형구성작업2 (퍼즐)	
	11	도형구성작업3 (고향풍경)	

	12	주사위 만들기	
시공 간 기능 강화 3	13	제시된 반쪽 모양 완성하기	
	14	대칭그리기	

<p>일상 생활 능력 향상</p>	<p>15</p>	<p>화장실/입원실 표지판 표현하고 기억하기</p>	
	<p>16</p>	<p>집 찾기</p>	 

ABSTRACT

Development & Research of Program on Art Therapy to the Aged with Dementia

Kim, jae won

Major in Fine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current society, population of the aged is gradually increasing trend with one's average lifetime expanded by promotion of medicine.

Additionally, a count of aged patients is even increasing trend, especially increasement of a patient with dementia is representing a crucial matter of society.

So far, it has been known that there is no perfective way to treat dementia and medical treatment using medicines is mainly used as the way to alleviate symptoms.

However, studies to verify effectiveness on art therapy as one of alternative treatment are more being announced recently.

This study focused on the need of art therapy to the aged with dementia and development of program was intended to develop art therapy program, one way to treat dementia and seek use of it throughout a type of material and my experience of proceeding art therapy to patients dementia in hospital for seven years.

First, the main subject dealt with analysing social problems occurred by the aged with dementia throughout newspapers, scripts, and so on with pre-studies and literature placed on theoretical background.

Then, I has analysed influence of art therapy to the aged with dementia and how to approach with internal and external literatures applied to my experience.

Finally, I has proposed applicable and concrete art therapy program in realistic appliance of art therapy to be carried out to the aged with dementia.

Dementia that is diseases related with ageing is not easy to discover but if it is stage to express regressive behavior, patient as well as all the families around him will be faced with crucial difficulty.

By the way, art therapy can help improve the ability of daily lives by evoking emotion of the aged with dementia who are at home.

Besides, appliance of art therapy to the aged with dementia who have been segregated due to being sick in bed has an effect on reducing a sense of estrangement and accepting one's life positively.

Accordingly, There will be the need to activate art therapy more broadly

and to do so, lots of effort and interest of administrator are needed.

Whoever will be an old man and may be an aged with dementia. Therefore, problem on the aged with dementia could be all our problems so we have to be interested in approaching to the aged with dementia throughout activation of art therapy.